

한교연, 16일 인천 예일교회서 광복·건국 연합예배 드린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제… 김은호 목사 설교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천환 목사, 이하 한교연)이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 인천광역시 예일교회에서 '815 제81주년 광복제78주년 건국 연합예배'를 드린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예배에서는 김은호 목사(오류교회 원로)가 말씀을 전하며, 한국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한다.

한교연은 이번 연합예배를 통해 광복의 의미를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표회장 천환 목사는 한국교회에 보낸 초청 글에서 “올해 광복·건국 연합예배는 장소와 일정 문제로 많은 기도와 고민 끝에 인천 예일교회에서 드리게 됐다”며 “인천은 복음이 이 땅에 처음 전해진 선교의 출발지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



한교연 대표회장
천환 목사



오류교회 원로
김은호 목사

는 곳이어서 그 뜻을 품고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천 목사는 예배 시간이 주일 오후인 점

과 관련해서는 “행사의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도권 교회들이 교파와 지역을 넘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연합의 모습”이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와 광복, 그리고 건국의 소중한 역사를 바르게 기억하고 나라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정신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뜻깊은 예배가 되도록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교연은 연합예배가 교단지역을 초월한 한국교회의 연합을 다지고, 나라를 위한 기도의 시간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천 목사는 “광복은 하나님이 민족에게 베푸신 선물이었고 자유는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신앙과 함께 계승해야 할 사명”이라며 “한국교회는 민족의 위기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나라를 세우고 희망을 노래해 왔다. 이제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라와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합예배가 교단과 지역을 넘어 하나 되는 예배가 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영적 출발점

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예배가 열리는 예일교회도 환영사를 통해 참석자들을 맞이한다. 교회는 “우리는 과거를 기념하기 위해서만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 은혜를 감사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바르게 계승하기 위해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위해 모였다”며 “이번 예배를 통해 한국교회가 더욱 하나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기쁨의교회 정의호 목사 관련 ‘총회 회의록’ 진위 공방

예장 합신 중서울노회 “변개” 주장에 총회 “왜곡되지 않았다”

예장 합신 중서울노회(노회장 장중현 목사)가 3일 서울 서진교회에서 제70회 제3차 임시노회를 개최하고, 기쁨의교회 정의호 담임목사에 대한 총회 결의를 왜곡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유포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기쁨의교회와 정 목사는 올해 1월 이 노회에 가입했다.

노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해 9월 교단 제110회 총회에서 정 목사와 관련해 최종 결의된 것은 이단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의 ‘원안’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안된 ‘개의원’이었다며, 그 사실을 되짚었다.

이에 따르면 이대위의 원안은 정의호 목사를 1년 동안 이단성으로 규정하고, 올해 제111회 총회에서 최종 보고를 받도록 하자는 내용이었다. 반면 개의원은 정 목사로 하여금 노회에 가입해 지도와 처리를 받도록 하고, 그 과정을 1년 동안 지켜본 후 다시 이단성 여부를 판단하자는 내용이었다.

총회는 두 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해 개의안 찬성 63표, 원안 찬성 50표로 개의안을 가결했다고 노회 측은 밝혔다. 이런 내용은 노회가 당시 총회 녹취록을 근거로 법적 공증을 받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올해 3월 나온 제110회 총회 회의록에는 이와 달리 ‘기쁨의교회(정의호 목사)에 대한 이단성 규정을 1년 유예’라는 것으로 개의안 내용이 기록돼 있다고 노회는 주장했다. 노회는 이것이 “실체 채택된 결의안과 다른 변조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노회에 가입해 지도와 처리를 받

는다’는 내용이 빠졌다는 것이다.

노회는 “제110회 총회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정의호 목사)가 노회에 가입해 노회의 지도와 권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단성 결의를 받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 결의를 달리 해석해, 제110회 총회 결의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노회의 (기쁨의교회와 정의호 목사) 가입 결의를 문제 삼고 교회와 목사의 가입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처분 청원이 총회상설재판국에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총회상설재판국은 올해 3월 중서울노회의 기쁨의교회와 정의호 목사 등 가입승인의 행정처분 취소를 판결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변개된 총회록에 근거한 것”이라는 게 노회 주장이다. 결국 노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이 판결에 대한 특별재판을 현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회는 “노회가 교회를 영입하는 것은 노회(치리회) 고유의 권한으로 행정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했다.

또한 노회는 지난해 제110회 총회에서 해당 결의가 있을 당시 의사정족수 미달 상태였다고도 주장했다. 노회는 “장로 총대는 정수 157명 중 과반수인 79명 이상이 출석해야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게 된다”며 “그러나 당시 장로 총대는 36명만 출석했다”고 했다.

노회는 “실명 총회와 상설재판국의 절차가 적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단대책위원회의 보고와 결의 자체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속회에서 이루어진 이상 그 결의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예장 합신 중서울노회 임시회가 3일 서울 서진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노회는 “제110회 총회의 결의를 왜곡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고, 노회와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되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아울러 교단 헌법과 총회 결의가 정확하게 해석되고 존중되기를 촉구하며,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법과 교단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합신총회(총회장 김성규 목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서울노회 주장에 반박했다. 총회는 “총회 회의록은 왜곡되지 않았다”며 “제110회 총회에서 표결에 부쳐 가결된 안건은, 총회장이 개의안 발의 직후와 표결 직전 두 차례에 걸쳐 ‘이단성 규정을 1년 유예하는 개의안’이었다. 이는 총회 녹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회의를 통해 가결되는 안건은 발의자의 발언 전체가 아니라 의장이 표결에 부친 안건”이라며 “사기부는 이 안건을 그대로 기록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제110회 총회는 기쁨의교회가 ‘이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단성 판단을 1년 유예한 것”이라며 “기쁨의교회 측이 이대위의 지적을 시인하고 바로잡겠다는 뜻을 표한 것을 전제로, 제111회 총회의 최종 보고에 이르기까지 이단성 규정을 미룬 것”이라고 했다.

또한 “총회의 결정은 특정 노회로 하여금 반드시 가입시켜 지도하라는 명령이 아니었다”며 “합신헌법은 총회와 노회를 상하와 하회의 수직 관계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미결의 사안은 보다 넓은 치리회의 판단과 결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서울노회는 제110회 총회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총회는 “사기부의 기록은 왜곡이 아니며, 총회상설재판국의 판결은 유효하다. 우리는 중서울노회가 재판국의 판결에 순종하고, 이의가 있다면 헌법이 정한 절차를 밟을 것을 권면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한가협 “마약사범 3년 연속 2만 명 돌파”

국내 마약사범이 3년 연속 2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전체 적발 인원의 60% 이상이 10~30대 젊은 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청소년과 청년층의 마약 접근성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한국가속보건협회(대표 김지연, 이하 한가협)는 대검찰청이 최근 발간한 '2025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인용해 지난해 적발된 전체 마약류 사범이 2만 3403명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2만 3022명) 대비 1.7% 증가한 수치로, 국내 마약사범은 2023년 이후 3년째 2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마약 범죄의 뚜렷한 ‘저연령화’ 현상이다. 10대(19세 이하) 마약사범은 674명으로 전년(649명)보다 3.9% 늘어났다. 전체 연령대 비중을 살펴보면 20대가 29.5%, 30대가 29.9%를 기록해 10대를 포함한 30대 이하 사범이 전체의 62.3%에 달했다.

이처럼 젊은 층 사이에서 마약이 급속도로 퍼진 주된 배경으로는 ‘온라인 비대면 거래’의 진화가 꼽힌다. 과거 마약 전과자들 사이에서 제한적으로 유통

되던 것과 달리, 최근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각종 SNS를 통해 일반인도 해외 공급처와 손쉽게 연락해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공급 및 유통망의 확대를 보여주는 지표도 급증했다. 지난해 밀수사범은 1772명으로 전년 대비 57.4% 크게 뛰었으며, 제조사범(25명, 31.6% 증가)과 외국인 마약사범(3298명, 2.0% 증가) 역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였다.

한가협은 이러한 실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국가 차원의 선제적 방역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협회 측은 “10대 마약사범 적발 비율이 수치 상으로는 2.9%지만, 적발되지 않은 초기 사용이나 또래 간 권유 등을 포함한 ‘암수범죄’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기의 마약 투약은 학업 중단은 물론 신체·정신적 파괴와 2차 범죄 가담 등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결과를 낳는다”며 “사후 처벌과 치료를 논하기 이전에 단 한 번의 호기심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핵심이다.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예방 교육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형구 기자

[표 3-21]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마약류

합계

16,153

18,395

27,611

23,022

23,403

마약

1,745

2,551

3,970

1,954

1,732

향정

10,631

12,035

19,556

17,751

19,212

대마

3,777

3,809

4,085

3,317

2,459

©한가협

액상 향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소재 전문기업 트윈위즈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구단지 1길 16, 4층 ☎ 055-286-9004

도료 / 라텍스



가전/가구 필름



기능성 페인트



라텍스 장갑



도어락/손잡이



차량용 필름/디스플레이



생활용 도료/코팅액

※ 제품의 색상, 외관 및 특성 변화 없이 향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소재

“미셸 스틸 대사 부임 환영… 한미동맹 새 도약 기대”

한미자유물결·서울시교회총연합회 등, 부임 환영 기자회견 개최

한미자유물결(대표 박윤기)과 서울특별시교회총연합회 등 단체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의 부임을 환영하며 한미동맹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

에서 미국 독립 250주년을 축하하는 한편, 새로 부임한 미셸 스틸 대사가 한미 양국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1776년 미국 독립선언에서 천명된 자유와 인권, 법치의 가치는 지난 250년간 인류 보편의 자산이 됐다”며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며 발전해 왔고, 한미동맹은 한국전쟁 이후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지켜온 혈맹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핵심 축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에서 태어나 초등학교까지 다닌 한국계 첫 여성 연방 하원의원 출신인 미셸 박 스틸 대사가 제26대 주한 미국대사로 부임한 것은 한미 관계 역사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며 “한국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대사가 양국 정부뿐 아니라 국민과 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계 대사라는 상징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의 국익을 조화롭게 연결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지혜로운 해법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며 “역대 어느 대사보다 유연하고 폭넓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며, 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미셸 스틸 대사의 부임을 계기로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지고, 양국 국민의 우정이 한층 깊어져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개혁신의생명신학목회자협의회 제15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지동 기자

의학의 미래를 선도합니다

존슨앤드존슨은 헬스케어 솔루션의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앞당겨 전 세계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구하며, 내일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끝없이 도전합니다.

(주)한국안센은 존슨앤드존슨 제약부문의 국내 법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janssen.com/johnson-johnson-innovative-medicine
혹은 www.janssen.com/korea 에서 확인하세요.

Johnson&Johnson

“유치원생·초등학생 대상 노골적 성교육 도서 심각”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박은희 대표, 최근 세미나서 포괄적 성교육 도서 비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박은희 공동대표가 학교와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된 일부 성교육 도서와 교재의 선정성과 젠더 이데올로기 편향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은희 대표(사진)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대한민국 헌정회관에서 김경재 전 의원이 개최한 ‘우리 아이들 성교육, 이래도 괜찮은가’ 세미나에서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박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유네스코 등이 주도하는 ‘포괄적 성교육(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의 실태를 집중 비판했다. 박 대표는 “유네스코 가이드를 보면 5~8세에게 생식기 기능을 가르치고, 9~12세에는 항문성교와 구강성교가 정상이며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탐구하라고 가르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교과서 역시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과 피임을 가르치는 등 미성년자에게 성관계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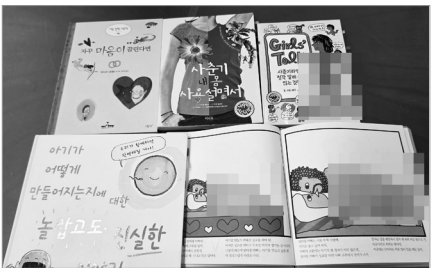
실제 교육 현장과 교과서의 과거 사례도 언급했다. 박 대표는 과거 초등학교



보건 교과서에 지나치게 적나라한 남녀 성기 삽입 그림이 실렸다가 학부모들의 항의로 삭제된 사례를 전하며, 중학교 보건 교과서에도 나체 그림과 과도한 피임 교육이 포함된 반면 에이즈의 주된 감염 경로인 동성 간 성접촉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여성 가족부가 선정했던 ‘나다움 여단아책’ 중 일부 도서가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남녀 간 성관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유아 그림책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에는 “아빠가 엄마의 집에 고추를 넣어… 신나고 멋진 일이야” 등 민망한 표현과 그림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로 이를 본 6세 아이가 유치원에서의 흉내로 이어진 사례가 보고됐다.

유아 그림책 ‘자꾸 마음이 끌린다’에는 동성 커플을 다루며 상체를 벌거벗고 가슴을 노출한 여성 커플 그림과 노골적인 성기 설명이 담겼다. 초등 도서 ‘사춘기 내 몸 사용설명서’에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고 안전한 섹스를 하면… 자위를 하면 행복 호르몬이 팔팔 솟아져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포괄적성교육 내용의 성교육 도서.©전학연

박 대표는 이러한 도서들이 여성가족부 추천도서라는 이유로 전국의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등에 버젓이 비치되어 있어 학부모들이 내용을 모른 채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대표는 아이들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학교 교육과 세상 문화에 방입할 경우 성교육이 급진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성교육은 일대일로, 가정에서, 생활 속에서, 필요에 따라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을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며 학부모들이 자녀가 접하는 도서와 교육 내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에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대표는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하고, 국민들이 SNS와 합의 전화를 통해 동참할 때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당부하며 강연을 마쳤다.

노형구 기자

“제주4·3교육과 신설 반대… 특정 역사관 주입 우려”

살롬나비 “교육의 객관성과 균형성 확보해야”

‘살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환 박사, 이하 살롬나비)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제주43교육과 신설 계획에 반대하는 논평을 3일 발표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와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살롬나비는 이날 ‘제주43교육과 신설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제주43사건은 ‘민주’, ‘평화’, ‘인권’이라는 관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역사적 사건”이라며 “특정 역사관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이뤄질 경우 학생들에게 편향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의식 제주교육감이 제주43교육과를 신설해 관련 교육을 확대하려는 계획에 대해 “대한민국 건국 과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제주43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해 다양한 해석과 자료를 함께 다루는 균형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살롬나비는 특히 제주43사건에 대해 “당시 남로당의 지령과 영향을 받은 세력이 미군정과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며 무장행동을 전개했다는 역사적 평가가 존재한다”며 “무고한 도민들의 희생은 기억해야 할 비극이지만, 사건의 모든 역사적 맥락을 국가폭력이라는 관점에서만 일반화하거나 특정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교육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제주43을 ‘민주항쟁’이나 ‘무장봉기’로 규정하는 특정 해석만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에 대한 다양한 역사적 평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살롬나비는 제주교육청이 추진하는 제주43 관련 교과서 개발과 제주43평화공원 파견 교사제 운영 계획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관련 교육이 특정한 역사 해석을 중심으로 이뤄질 경우 역사교육의 균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건국 과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 및 유지 과정에 대한 역사적 맥락도 함께 교육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교육 정책과 함께 성평등 및 성 관련 교육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살롬나비는 “제주43교육과 함께 젠더주의의 성평등 및 성 관련 특정 가치관이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될 우려가 있다”며 “교육은 학생들의 양심의 자유와 교육의 중립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에 반신적 공산주의 이념과 특정 성 관련 가치관이 일방적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제주교육청은 제주43교육과 신설 계획과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고, 객관성과 균형성을 갖춘 역사교육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살롬나비는 “제주43교육과 신설 계획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한국교회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가치와 역사교육, 교육권 및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다음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복음통일의 가치를 계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제81주년 8·15 광복절 연합예배’ 9일 개최

광복의 은혜를 되새기고 자유대한민국의 번영과 전북 지역의 영적 회복을 다짐하는 도내 최대 규모의 교계 행사가 열린다.

전북특별자치도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영환 목사)는 오는 9일 주일 오후 4시, 전북 군산시 경포로에 위치한 군산한일교회(담임 권익구 목사)에서 ‘제81주년 815 광복절 연합예배’를 성대하게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광복을 넘어 영광의 전북으로’(갈라디아서 5장 1절)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합예배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사군 기독교연합회가 공동으로 후원하며, 도내 목회자와 성도, 장관계 내외빈이 한 자리에 모여 나라와 민족을 향한 비전을

선포할 예정이다.

이날 예배의 주강사로는 분당한신교회의 윤교희 목사가 초빙됐다. 윤 목사는 역대상 12장 32절과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본문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를 통해 현재 한국교회가 직면한 시대적 사명을 강조하고 성도들의 강력한 영적 결단을 촉구할 계획이다.

행사는 총 3부로 나뉘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준비위원장인 권익구 목사의 사회로 막을 올리는 1부 기념 예배에서는 애국가 제창과 대표회장 고영환 목사의 대회가 이어진다.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뜻깊은 순서도 마련됐다. 교계와 지자체가 힘을 모으는 취지에 맞춰 지역

안보에 헌신한 제35보병사단 박희수 소령에게 표창이 수여되며, 도내 14개 사군에서 선발된 대표 학생 및 특별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된다.

말씀 선포 직후에는 전주한동교회 김동하 목사의 인도로 특별 기도가 열린다. 참석자들은 자유대한민국 수호와 한국교회 예배 회복, 대한민국 번영과 북한 동포의 안위, 전북도정 발전과 지역 회복,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반성경적 악법 제정 반대 등 시급한 국가적·사회적 현안을 가슴에 품고 합심하여 기도하게 된다. 예배의 감동을 더할 찬양 순서에는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를 비롯한 전북 연합찬양대가 나서 웅장한 하모니를 선보인다.

노형구 기자

미셸 스틸 대사, 영락교회서 주일예배 드려



미셸 스틸 대사가 영락교회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 ©독자 제공



미셸 스틸 대사가 영락교회 김운성 담임목사와 대화하고 있다. ©독자 제공



미셸 스틸 대사(왼쪽)와 남편인 손 스틸 변호사. ©독자 제공

부임 첫날 방문 뒤 나흘만에 다시 찾아

지난 달 30일 한국에 온 직후 서울 영락교회(담임 김운성 목사)를 찾아 기도했던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2일에도 이

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렸다. 기독교인인 스틸 대사는 이날 남편인 손 스틸 변호사와 함께 교회를 찾았으며,

교회 측은 예배가 끝난 뒤 스틸 대사를 교인들에게 소개했다. 스틸 대사는 따로 김운성 담임목사 등 교회 관계자들과 만남을 갖기도 했다. 스틸 대사는 앞으로도 영락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대사는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주한 뒤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정치 경력을 쌓아온 한국계 미국인이다. 어린 시절 스틸 대사는 북한

에서 내려온 실향민인 부모님과 함께 영락교회를 다녔다고 한다. 스틸 대사는 4대째 기독교 신앙을 이어온 신앙인으로, 정치 활동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해 왔다고 고

백해 왔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이끄신다”며 정치 현장에서 믿음을 실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진영 기자

2026 여름 국제청소년·청년성령컨퍼런스… 국내외 청소년·청년 2천여 명 한자리에

서울 신길교회서 27~29일 ‘하나님의 꿈’ 주제로 진행

‘2026 여름 국제 청소년·청년 성령컨퍼런스’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신길교회(담임 이기용 목사)에서 ‘하나님의 꿈’(창세기 12:1)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전국의 청소년과 청년, 교사를 대상으로 마련됐으며, 국내 참가자와 함께 해외 16개국에서 방문한 현지인과 선교사 자녀(MK)들도 참석했다. 약 2천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 80개 교회가 함께하는 초교파 연합 집회로 진행됐으며, 세대와 국가를 넘어 다음세대의 신앙 회복과 영적 성장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 개회에 앞서 신길교회 담임목사이자 기독교대한성령교회 제120년차 총회장인 이기용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참석자들을 환영하고 컨퍼런스의 의미를 전했다.

이목사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며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금 여러분은 인생

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고, 미래를 결정짓는 시간 속에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시간이 현재의 여러분을 만들었다면, 지금의 시간은 미래의 여러분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2박 3일 동안 신길교회 모든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섬길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컨퍼런스는 편히 쉬기 위해 온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온 자리”라며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며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한다”고 축복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시작” 첫날 저녁에는 ‘넌 언제든지 다시 시작

할 수 있어’(요한복음 21:10~14)를 주제로 성령캠프1이 이어졌다.

주강사인 기독교대한성령교회 제120년차 총회장 이기용 목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원리와 신앙의 회복에 대해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목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경험은 더욱 깊은 믿음으로 이어져 다시 순종하게 되는 영적 선순환을 만들어 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성도들이 영적 체험의 부족으로 신앙의 매너리즘이나 형식적인 신앙 생활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다”며 “자신의 경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매일 찾고 기도로 의지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거창한 결심보다 삶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중요하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삶 속에 직접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다.

이목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된다고 참석자들에게 권면했다.

◆“죄를 고백할 때 회복이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자유를 얻는다”

둘째 날인 28일 오전 진행된 성령캠프 2에서는 ‘항상 너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시’(시편 51:9~17)를 주제로 이기용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이목사는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의 시이며,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셨다”며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이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까워질 수 없으며,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죄”라고 강조했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죄의 값을 모두 치르셨다”며 “크고 작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 사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지만 주님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열린 성령캠프3에서는 ‘온 우주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시’(요한복음 3:14~21)를 주제로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전했다.

이목사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죄 아래 살아가게 만들지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모두 치르셨다”고 말했다.

이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우주보다 귀한 존재”라고 강조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다음세대의 신앙 회복을 위한 자리로”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 청소년과 청년

뿐 아니라 해외 16개국에서 방문한 참가자들이 함께하면서 국제적인 연합 집회로 진행됐다. 선교사 자녀(MK)와 현지 참가자들도 함께 참여해 국가와 세대를 넘어 신앙 안에서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전국 80개 교회가 함께하는 초교

파 연합 집회로 마련돼 교단과 교회의 경계를 넘어 다음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찾고 신앙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컨퍼런스 기간에는 이기용 목사를 주강사로 한 성령캠프가 계속해서 진행됐다. 장지동 기자



‘2026 여름 국제 청소년·청년 성령컨퍼런스’가 서울 신길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에서 참석한 청소년과 청년들이 예배와 찬양, 말씀과 기도 등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신길교회



국내외에서 모인 청소년과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며 다음세대의 신앙 회복과 하나님의 뜻이 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했다.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가 ‘2026 여름 국제 청소년·청년 성령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신앙의 회복을 강조했다. ©신길교회



‘2026 여름 국제 청소년·청년 성령컨퍼런스’에 참석한 청소년과 청년들이 한마음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 ©신길교회





AEKYUNG BLUE

E 100
S 100
G 100

AEC AEKYUNG

애경이 만드는 세상의 색깔은 블루

애경은 푸른색의 세상을 꿈꿉니다

지속가능한 푸른 내일을 위해
애경은 탄소저감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람과 환경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이태희 목사 “회개·성령·전도로 다시 민족복음화”



이태희 목사(오른쪽)가 데보라 정 목사에게 뉴질랜드 대표회장 임명패를 전달한 뒤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오산리기도원서 기도대성회 개최 뉴질랜드 대표회장에 데보라 정 목사 임명

민족복음화운동본부는 오산리최자실 기념급식기도원에서 '2027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를 위한 성령충만 치유회개기도대성회를 개최하고, 2027년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를 위한 기도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뉴질랜드 대표회장으로 데보라 정(Church Unlimited) 목사를 임명했다.

이날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 이태희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한 회개와 성령운동, 전도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목사는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 프로그램이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앞드리는 회개에서 시작된다”며 “회개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부흥도, 민족복음화도 이룰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복음전도가 살아날 때 대한민국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이루어진다”며 교회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설교 후에는 안수기도가 이어졌다. 이 목사는 참석자들을 위해 기도했으며, 참석자들은 한국교회의 회복과 민족복음화, 다음세대, 세계선교를 위해 합심기도했다.

이날 성회에서는 데보라 정(Church Unlimited) 목사를 '2027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 뉴질랜드 대표회장으로 임명하는 순서도 진행됐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는 이번 임명을 계기로 한국과 뉴질랜드를 비롯한 해외 한인교회들이 2027년 대성회를 위해 합

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기반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목사는 “1977년 민족복음화성회가 한국교회 부흥의 전환점이었다면, 2027년은 다시 한번 성령운동과 회개운동,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전국 교회와 세계 한인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8천만 민족복음화의 비전을 이루어 가지”고 말했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는 앞으로 국내 지역본부와 해외 대표회장 조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한국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 간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구세군, 5일 서울 도심서 ‘생수 나눔’ 펼친다

구세군자선냄비(사령관 김병윤)는 폭염 속 시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기 위해 지난 8월 5일 서울 시내 주요 거점에서 '무더위 생수 나눔 캠페인'을 진행

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이번 '무더위 생수 나눔 캠페인'은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시민들에게 생수를

전달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등 일상 속 나눔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구세군 본영 7개 부서

임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참여한다. 이들은 광화문역과 아현역, 사대문역, 충정로역 등 서울 도심 4개 거점에서 이동 중인 시민과 야외 활동 중인 이들에게 총 2,000병의 생수를 전달하며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당부할 예정이다.

구세군의 생수 나눔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로 이어질 계획이다. 구세군

은 지난 7월부터 인천을 비롯해 강원 원주, 전북 전주·익산, 경북 영덕·안동, 대구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총 2만여 병의 생수를 나누며 무더위에 지친 주민들을 살핀다.

각 지역 구세군은 야외 근로자와 이동노동자 등 다위에 취약한 이들을 직접 찾아가 안부를 묻고 안전을 확인하는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구세군 관계자는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사는 외출조차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생수 한 병이 잠시나마 더위를 식히고 시민들의 하루를 응원하는 작은 위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노형구 기자

족방촌 독거어르신 위한 ‘사랑의 전복삼계탕데이’ 개최

(사)월드뷰티랜드(회장 최에스터 교수·신한대학교)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평양노회 남선교연합회(회장 박홍찬 장로), 평양노회 남선교연합회(회장 안연덕 장로), (사)해돋는마을(이사장 장현일 목사·신생명나무교회)이 공동으로 주최한 고독생프로젝트 '사랑의 전복삼계탕데이' 밥사랑잔치 및 뷰티서비스가 지난 29일 서울 마포구 엘드림통합돌봄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중복을 맞아 폭염 속에서 생활하는 족방촌 주민과 독거어르신들에게 전복삼계탕을 제공하고, 뷰티서비스와 장수사진 전달 등을 통해 정서적 위로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연덕 장로(평양노회 남선교연합회 회장)는 “중복을 맞아 무더위에 지치고 힘든 족방촌과 독거어르신,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사랑의 전복삼계탕으로 섬길 수 있어 기쁘다”며 “모두 영육이 더욱 강건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장민욱 전도사(사)해돋는마을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삼계탕 봉사가 진행되고 있다. ©해돋는마을

엘드림합창단의 특송, 박홍찬 장로(평양노회 남선교연합회 회장)의 대표기도에 이어 임종한 장로(평양노회 남선교연합회 전 회장)가 식사기도를 인도했다.

장현일 목사(사)해돋는마을 이사장)는 “폭염 속에서 외롭게 생활하는 족방촌 주민과 거동이 어려운 독거어르신,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어르신들을 위해 지난 4년간 삼계탕데이 밥사랑잔치를 통한 고독생프로젝트에 헌신해 준 평양·평양노회 남선교연합회에 감사드린다”며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이웃과의 소



행사 봉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돋는마을

통과 사랑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에서는 전복삼계탕 식사 제공과 함께 장수사진 전달식, 여름철 뷰티서비스가 진행됐다.

이날 봉사에는 평양노회 남선교연합회와 평양노회 남선교연합회 임원들을 비롯해 장민욱 전도사, 박형근 찬양사역자, 유순복 영양사, 신생명나무교회 봉사단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다. 또한 김순희 교수(월드뷰티랜드)가 여름철 뷰티서비스를 제공했다. 김진영 기자

‘십자인대 파열’ 유도 선교사 캄보디아 선교지 복귀

캄보디아에서 스포츠를 통한 복음 전파에 힘쓴 이승찬 선교사가 전방십자인대 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극복하고 오는 8월 5일 선교 현장으로 돌아간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그의 복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지난 5월, 이 선교사는 선교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에서 근로 활동을 하던 중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다. 선교지 복귀를 눈앞에 두고 찾아온 뜻밖의 사고는 사역 중단이라는 위기로 이어지는 듯했다.

특히 자비량으로 사역을 이어가던 그에게 막대한 수술비와 치료비는 커다란 장벽이었다. 그러나 이 선교사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곳곳에서 돕는 손길이 이어졌다.

우선 부산일신기독병원이 수술비를 지원하고 나섰다. 수술 집도를 맡은 양성욱 과장과 원복실 이정화 전도사 등 의료진과 교직원들의 헌신적인 치료와 돌봄 덕분에 이 선교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소망을 품게 됐다.

수술 이후의 재활 과정에서도 뜻밖의 동역이 이어졌다. 지난 5년간 캄보디아 유도 선교를 묵묵히 지원해 온 2012 런던



유도 지도하던 이승찬 선교사의 모습. © 이승찬 선교사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김재범 대한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장이 힘을 보탰다. 김 위원장의 연결로 주요 스포츠 선수들의 재활을 도맡아온 한림플러스 재활의학과 김창원 원장이 직접 이 선교사의 재활 치료를 전담했다.

체계적인 치료와 따뜻한 지원 속에 회복의 의료진조차 놀랄 만큼 빠르게 진행됐다. 당초 다시 걸을 수 있을지조차 우려했던 심각한 부상이었으나, 의료진의

전폭적인 도움 속에 선교지 복귀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탄탄하게 회복을 마쳤다.

이번 지원에 앞장선 김재범 위원장은 “선교 사역 중 지치고 힘들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동역자가 되길 기도해 왔다”며 “이번 부상을 계기로 더 많은 기도와 사랑을 경험하고 이 선교사를 다시 현장으로 보낼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승찬 선교사는 오는 8월 5일 캄보디아로 출국해 현지 유도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스포츠 선교를 재개한다. 유도를 매개로 현지 선수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선교사는 “치료 과정에서 받은 과분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캄보디아에서 복음의 삶을 나누는 사역자로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복귀는 단순히 한 선교사의 회복 소식을 넘어, 의료기관과 의료진, 스포츠인, 그리고 성도들의 섬김이 하나로 모여 이뤄낸 결실이다. 절망적인 부상 속에서 시작된 헌신의 손길이 이제 다시 캄보디아를 향한 소망의 발걸음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형구 기자

친환경 에너지전환 선도기업

한국동서발전

2030년까지 탄소배출 **45.9%** 감축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69%** 확대
2050년 탄소배출 **Zero**화 추진

EWP 한국동서발전주

말리부에 타오른 70시간 예배의 불꽃 ‘다윗의 장막 LA 2026’

교단과 세대를 뛰어넘은 연합, 주제별 진행:
회개·회복·부흥·파송, 이민교회의 새로운 도전

미주 한인교회들이 교단과 세대, 언어의 경계를 넘어 하나 되어 예배하는 '다윗의 장막 LA 2026'가 캘리포니아 말리부의 페퍼다인대학교에서 열렸다. 주최 측에 따르면 24일 기준 약 640명이 등록했으며, 집회는 27일(월) 오후 2시부터 30일(목) 낮 12시까지 70시간 동안 쉬지 않고 예배와 기도로 이어졌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역대하 7장 14절)를 주제로 열린 이번 집회는 한어권과 영어권, 청소년과 다음 세대가 함께 미주 한인교회의 연합과 회복,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 기간 메인 집회가 열린 엘킨스 오디토리움에서는 찬양과 말씀, 중보기도가 쉼 없이 이어졌으며, 레비스탕스, 한국 뉴모라비안, 더크로스처치, 모통이돌선교회, 아름다운교회 찬양팀 등이 찬양과 예배를 섬겼다.

영어권 집회는 스테퍼 채플에서 열렸으며 Upper Room 찬양팀이 참여했다. 한어권(KM)과 영어권(EM), 청소년과 다음 세대 연합집회도 함께 진행됐다.

주최 측은 등록부터 숙소, 식사, 셔틀, 현장 안내까지 운영 시스템을 갖춰 참가자들을 지원했다.

야간에는 숙소와 집회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매시간 운행했고, 의료·안전 지원팀도 상시 대기하며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이상훈 목사 '새로운 방향'

이더 이상훈 목사(미성대 총장)의 '새로운 방향', 손경일 목사(산호세 새누리교회)의 '다음 세대', 이수호 목사(울림팍장로교회)의 '진정한 회개'를 주제로 밤 12시까지 집회가 이어졌다.

이상훈 목사는 누가복음 13장 18-21절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결국 그 생명력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과 사회, 국가 전체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수호 목사 "기존을 잃은 신앙... 고장난 화재 경보기"

첫날 밤 철야기도에서는 이수호 목사가 사사기 17장 2-6절을 본문으로 '회개의 본질'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가스 경보기를 예로 들며 "화재가 났을 때는 울리지 않고 화재가 없을 때만 울린다면 그 경보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신앙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기준에 따라 움직일 때는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도 될 것을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더 사사기 17장에 등장하는 미가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을 삶의 유일한 왕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둘째 날 새벽예배... 제임스 최 목사 '선교의 회복'

철야기도가 이어진 가운데 제임스 최 목사(한국명 최효석·Kalam Japan)가 고린도전서 15장 9-11절을 본문으로 '선교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둘째 날 첫 메시지를 전했다.

제임스 최 목사는 초대교회에서 중세와 종교개혁 시대를 거쳐 현대 선교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간결하게 짚으며, 오늘날 교회 내부의 분열이 선교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력한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라며 "교회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은혜의 세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더 오전 집회에서는 박은성 목사(나성영락교회)가 '말씀의 회복', 지용주 목사(시라큐스한인교회)가 '기도의 회복', 최원일 목사(인랜드교회)가 '예배의 회복'을 주제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최원일 목사, 천상의 예배와 예배의 회복

최원일 목사는 요한계시록 5장 11-12절을 본문으로, 로마제국의 핍박 가운데 놓여 있던 아시아 일곱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천상의 예배 장면을 통해 소망을 붙들게 됐다고 설명하며,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

오후에는 국윤권 목사(충현선교회)가 '이민교회, 가명훈 목사(도렌스조은교회)가 '관계의 회복', 고태형 목사(치도힐스선한목자교회)가 '정결함의 회복',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와 박호종 목사(더크로스처치)가 '회복과 부흥'을 주제로 집회를 이어갔다.

◆국윤권 목사,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없던 다윗의 장막과 예수 그리스도

국윤권 목사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언약궤를 되찾았을 때,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기뻐 춤을 추었던 모습을 언급하며,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육체를 찢어 휘장을 가르실 때 열리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고태형 목사, 드류 신학교 전 학장, 예일대학교 신학부 전 학장의 동성애자 아들 주례

고태형 목사는 고린도전서 5장 1-1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며, 미국의 스포츠계와 교단, 신학교 안에서 동성결혼과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기준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더 미국 교계 지도자들과 신학자들



'다윗의 장막 LA 2026'가 캘리포니아 말리부의 페퍼다인대학교에서 열렸다. ©미주침례신문사



이상훈 목사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그 생명력에 대해 설명했다. ©미주침례신문사

이 성경적 가치 위에 바로 서고,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기도했다.

"제가 섬기던 교회는 원래 PCUSA 소속 교회였다. 저희가 목회하는 동안 미국 장로교가 동성애자 성직 안수와 결혼의 정의를 바꿀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PCUSA가 동성결혼을 허용한다고 헌법을 바꾼 것은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닷새 전이었다. 교회가 세상의 범위보다 더 먼저 동성애자 성직 안수와 결혼의 정의를 바꾸었다."

"사람을 포용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 고린도전서 5장은 사랑이라는 말로 죄를 방치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성경적 사랑이 아니다. 교회는 죄인을 환영해야 하지만 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회개하는 사람은 품어야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를 공동체 안에서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고승희 목사, '삶의 주어가 나'로부터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야

둘째 날 저녁 집회에서는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가 말씀을 전했다. 고 목사는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말하는 '평화'의 의미를 비교하며, 내 삶의 주어가 '나'에서 '그리스도'로 변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이야기한다. 그리스도인들도 가장 높은 가치를 화평으로 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무슬림의 화평과 그리스도인들의 화평은 다르다. 무슬림은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켜 살해를 만든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십자가를 집으로 그 땅을 바뀌는 것이다. '남편이 변화되면 내 가정이 평화로워질 것이다.' '내 자식이 바뀌면 내 가정에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무슬림이다."

◆박호종 목사, "주님이 떠나갈까봐 기도를 붙들었다"

둘째 날 마지막 집회에서 말씀을 전한 박호종 목사는 나무뿌리로 연명해야 하고, 머리카락을 수출하던 한국에 대해,



레비스탕스, 한국 뉴모라비안, 더크로스처치, 모통이돌선교회, 아름다운교회 찬양팀 등이 찬양과 예배를 섬겼다. ©TV 기독교일보



이수호 목사가 사사기 17장 2-6절을 본문으로 '회개의 본질'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미주침례신문사

"제게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예수님의 임재가 제게서 떠나갈까봐 기도를 시작했다. 제가 중 3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 충격으로 곤고함이 밀려왔다. 방황이 시작되었을 때 선교단체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자 곤고함이 사라졌다. 이게 떠날까봐 잠만 나면 기도했다. 지금 이 허스키한 목소리가 17세 때 목소리이다. 예수님이 나를 떠나갈까봐 기도를 붙들었다."

첫째 날과 둘째 날 선포된 메시지와 70시간 동안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찬양과 예배로 섬긴 찬양팀과 예배팀의 헌신, 참여자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기도의 불꽃은 계속 타올랐다. 이어진 셋째 날과 넷째 날의 집회에서도 예배와 기도는 계속됐다.

주디 한 기자



당신 곁에서 새 삶 바라봅니다

사회와 환경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다시 바라봅니다
그 소중한 일상이 지속가능해지는 새 삶이 시작되길 바라봅니다
늘 당신 곁에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새 삶을 만들어갑니다



지용주 목사(시라큐스한인교회)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TV 기독교일보



고태형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TV기독교일보



고승희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TV기독교일보



박호종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TV기독교일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회개로 시작된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 민중기 목사
“지도자의 회개,
공동체 회복의 문 열어”

미주 한인교회들이 교단과 세대, 언어의 경계를 넘어 하나 되어 예배하는 ‘다윗의 장막 LA 2026’가 캘리포니아 말리부의 페퍼다인대학교에서 열렸다. 집회는 27일(월) 오후 2시부터 30일(목) 낮 12시까지 70시간 동안 쉬지 않고 예배와 기도로 이어졌다.

다윗의 장막 70시간 연속 기도회의 개회예배에서 민중기 목사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삼하 24:15-25)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는 남가주에서 열린 연합 모임의 의미, ‘다윗의 장막’이란 이름으로 이 집회를

여는 이유에 대해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했다.

“다윗의 장막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여러분이 꼭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길 원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임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라뿔산에서, 시내산에서, 인간을 만나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다윗의 장막을 소개하며, 다윗이 이스라엘을 제국으로 세우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를 계수한 죄를 범했고, 그 범죄로 인해 7만명의 사람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7만 명이 전염병으

로 죽었다. 그때 갓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아라우나(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제단을 쌓으라고 다윗왕에게 조언했다”며,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실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신다. 어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나? 회개할 때”라고 조언했다.

그는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해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자, 하나님께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기도한 사실에 주목했다.

“지도자가 회개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문이 열린다. 기도의 문, 응답의 문, ‘치유’의 문이 열린다. 다윗이, ‘하나님, 제가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정책을 잘못세웠는데, 왜 백성들이 죽어야 합니까’라며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기도했다. ‘나를 징계해달라’고 기도했다. 하나



개회예배에서 민중기 목사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삼하 24:15-25)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미주침례신문사

남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왕가를 바로 세우는 놀라운 문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는 다윗의 ‘개인의 회개’가

‘공동체의 회복’으로 연결되었듯, 지도자들이 사회적 문제, 잘못된 관행, 악습에 관해 공적인 책임감을 지고 나아갈 때, 공동체 전체가 회복될 수 있다고 전했다.

“20세기에 들어와 많은 신학자들이, 개인적인 죄뿐 아니라, 사회적, 제도적, 문화적으로 범하는 죄에 대해 이야기했다. 책임있는 사람들, 대표적 지도자들이 같이 나가야 한다. 책임감을 느끼는 분들이 함께 회개해야 한다. 미스바 성회가 그런 자리였으며, 그렇게 했을 때 하늘 문이 열렸다. 개인뿐 아니라 나라에 제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은혜의 물결이 타지게 하셨다.”

마지막으로 민 목사는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값을 치루고 구입했음을 언급하며, 이 회복을 위해서는 공동체적 헌신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디 한 기자

1870년 존 헨리, 2026년 인공지능… 기술 시대에 잃어가는 인간성

[다윗의 장막] 박은성 목사, ‘말씀의 회복’

미주 한인교회들이 교단과 세대, 언어의 경계를 넘어 하나 되어 예배하는 ‘다윗의 장막 LA 2026’가 캘리포니아 말리부의 페퍼다인대학교에서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열렸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역대하 7장 14절)를 주제로 열린 이번 집회는 한여권과 영여권, 청소년과 다음 세대가 함께 미주 한인교회의 연합과 회복,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둘째 날 오전 집회에서는 박은성 목사(나성영락교회)가 ‘말씀의 회복’, 지용주 목사(시라큐스한인교회)가 ‘기도의 회복’, 최원일 목사(인랜드교회)가 ‘예배의 회복’을 주제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박은성 목사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13절을 본문으로 인간 이성에 대한 낙관론이 지배했던 시대와 그 사상이 초래한 제2차 세계대전의 바극, 그리고 칼 바르트의 신정통주의와 바르멘 선언을 차례로 소개하며 ‘말씀을 듣는 자세’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신화와 같은 인물 중에 존 헨리가 있다. 당시에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다. 1800년대에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철도사업이었다. 암벽을 깨고 철도를 놓았다. 1870년에 스티븐드릴, 증기 굴착기가 발명됐다. 수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노동자들이 해고되기

싫어서, 철도회사에 인간 대 기계의 대결을 제안했다. 인간 대 기계의 대결이 시작되었다. 그 가운데 인간 대표로 나온 인물이 존 헨리였다. 인간과 기계 중에 누가 더 빨리 굴을 뚫는가였다. 헨리가 기계보다 굴을 빨리 뚫게 된다. 존 헨리가 그 암벽을 뚫고 나오자 마자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둔다. 존 헨리의 노력으로 노동자들이 해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기계로 대체되었다.”

그는 오늘날의 시대를 “인간적인 것을 잃어가는 시대”로 규정하며, “인간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넘어서 기술에 대한 신뢰를 갖고 살아”간다면, 20세기 초 자유주의 신학의 등장도 그와 맥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 신학을 반대하면서 칼 바르트가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을 주장하게 된 배경을 소개했다.

“그때 칼 바르트라는 목사님이 스위스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 섬유공장이 들어오고 많은 주민들이 그 공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느꼈다. 자유주의 신학에 기반한 인간중심적인 성경이 교인들의 심령을 울리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로마서 1장 16절을 새롭게 묵상하면



박은성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TV기록일보

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후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됐다.”

이어 칼 바르트가 정리한 ‘말씀의 세 가지 형태’를 소개하며 참석자들에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바르트는 우리 인생에 세 가지 형태로 다가오는 하나님 말씀에 가르쳐 주신다. 첫번째, 계시된 말씀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두번째, 성경, 기록된 말씀이다. 세번째, 선포된 말씀이다.”

그는 세계 어느 곳에서 전해지는 설교도 휴대전화로 쉽게 들을 수 있는 시대이나, 과연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고 하며 말씀을 마무리했다. 주디 한 기자

“성공 쫓는 실리콘밸리…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다윗의 장막] 첫째 날 오후, 손경일 목사 “성공이 아닙니다”

미주 한인교회들이 교단과 세대, 언어의 경계를 넘어 하나 되어 70시간 동안 연속으로 기도하는 ‘다윗의 장막 LA 2026’가 캘리포니아 말리부의 페퍼다인대학교에서 27일(월)부터 30일(목)까지 열렸다.

첫째 날 오후 집회에 강사로 선 손경일 목사(산호세 새누리교회)는 누가복음 5장 5-11절을 본문으로 “성공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눴다.

“제가 사는 동네는 실리콘 벨리. 저희 교회가 스탠포드와 구글 중간에 있다. 교회 구성원들이 스탠포드 박사님들과 구글 직원들이다. 그 엔지니어, 박사님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 ‘대박’, ‘성공’이다. 명예를 통한 성공이든, 물질을 위한 성공이든, 모두 성공을 위해 와 있다.”

이어서, 그는 영생을 찾아 그리스도께 나아온 부자 청년이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얻는 법을 가르쳐주셨음에도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간’ 이유에 대해 나누었다.

“만약 주님이 그 청년에게 그의 재산의 1/3만 팔아 나눠줘라 했다면 주님을 따랐을지 모른다. 아니면, 만 정도라면 따랐을지 모른다. 그런데 다 팔아서 나눠주라 하셨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 이 성안에, 이 안에 갇혀 있는 믿음.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고 말하는데 주님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하시면 다 내려놓을 수 있는가? 회개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서 멀어지는 줄 아는가?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다음 세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우리가 근심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입으로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곁에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근심하여 돌아간’ 부자 청년과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얻게 된 베드로를 대조해 설명했다.

“베드로에게는 갈릴리라는 곳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다.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것이 성공의 길이었다. 그러나 주님은 갈릴리에 있던 베드로에게 열방을 보여주신다. 그의 눈길을 돌려서 세상의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답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눅 5:5)를 근거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닌 ‘성숙’이라고 말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성숙이다. 성숙의 정의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세상이 말하는 성숙은 의존에서 독립을 의미한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숙은 완전히 다르다. 세상의 성숙은 의



손경일 목사는 오늘날 교회의 문제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세대 간 신앙 단절’의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봤다. ©미주침례신문사

존에서 독립인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숙은 독립에서 의존이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숙이다. 오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라고 말한다. 이게 성숙이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한 집사님의 실수로 주보에 주일 설교 제목이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그 거면 댔지 뭐가 더 필요해’라고 인쇄됐던 일화를 소개했다.

이어 “여러분, 대체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뭐가 더 필요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찾아 나아갑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세대가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갈 때,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며 메시지를마쳤다. 주디 한 기자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심장

탄소중립 선도 도시

보령

- 탄소중립 에너지 기회발전 특구 선정
- 지방소멸기금 투자 우수지역 선정

“中 가정교회 리더 구속됐지만, 청년 70여 명과 10개 지하 소그룹으로 확장”

정부의 종교 통제 강화 속 지하교회 위기 커져
한국오픈도어, 중국 지하교회 긴급 후원 캠페인 진행

중국 한 지하교회, 100여 명 예배 중 공안에 급습당해
부인이 청년들 다시 일으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은 자라”

한국오픈도어선교회가 중국 공안의 급습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하교회가 청년 사역으로 다시 일어난 사례를 소개하며, 7-8월 중국 지하교회 긴급 후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한 지역에서는 젊은 성도 100여 명이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다가, 공안이 모임 장소에 들이닥쳐 성도들을 연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지하교회를 이끌던 장(Zhang, 가명) 형제는 체포돼 수감됐고, 모임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장 형제의 부인이며 두 자녀를 둔 진이(Jinyi, 가명) 자매는 남편의 구속 이후 아이들을 부양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지역교회들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공안의 감시를 우려한 교회들이 그녀와 연루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다.

수년간 학생 사역을 해온 진이 자매는 “상처도 많이 받고 실망도 정말 컸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내게 감당할 힘이 있나?’ 싶었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했다”며 “그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버텨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전했다.

한국오픈도어는 이처럼 중국 내 종교 통제가 최근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알렸다. 중국 당국이 가정교회를 찾아내고,

급습하고, 처벌하기 위해 교배를 바짝 죄고 있으며, 압박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이러한 중국 가정교회의 체포 사건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다는 것이다.

한 현지 교회 리더는 “다들 진이의 사정을 알면서도 감히 나서는 사람이 없다. 분위기가 너무 살벌하기 때문”이라며 “몇 년 전만 해도 이 지역에 교회가 다섯 곳 있었지만, 지금은 정부가 공인한 교회 한 곳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정교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소규모로 숨죽인 채 숨어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종교 활동은 전면 불법화되고, 중국 정부는 교회 성장을 막기 위한 법안을 계속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시의 눈길은 어디에나 있으며, 당국이 교회 리더들에게 이른바 ‘차 한잔하자’(차 마시기)는 초대를 통해 ‘우리가 널 지켜보고 있다’는 경고를 보낸다고 했다.

한국오픈도어는 이처럼 위험하고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하교회가 자취를 감춰 버릴 위험도 있지만, 적절한 지원만 있다면 여전히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남편이 수감되고 믿음마저 흔들린 채 홀로 남겨진 진이 자매는 오픈도어 현지 동역자들의 방문을 계기로 다시 사역



비밀 모임을 갖고 있는 중국 지하교회(연출 사진) ©한국오픈도어

을 시작할 수 있었다. 현지 동역자들은 진이 자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함께 기도하며 믿음을 다시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는 “예전에 하나님께 받았던 소명이 다시 뜨겁게 살아났다. 우리 모임에 나온 청년들이 생각났다”며 “그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내가 꼭 도와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후 진이 자매는 청년들을 한 명씩 개인적으로 만나 격려하면서 성경공부 모임을 이끌기 시작했고, 청년 모임 장소를 제공받기도 했다. 결국 현재는 70명이 넘는 청년이 소속된 10개 지하 소그룹으로 확장됐다. 박해 속에서도 믿음은 자라난 셈이다.

진이 자매는 “남편은 아직 감옥에 있고, 우리 모임은 계속 지하에서 숨어야 하

니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셀 수 없이 많았다”며 “그래도 여러분의 후원과 격려 덕분에 덜 외롭고 덜 무섭다”고 말했다. 또 “이 청년들을 이끌어갈 몫이 너무 무거워 도저히 못 짊어지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주셨다”며 “주님을 섬기는 이 길에 여러분이 함께해 주신다는 걸 알기에 큰 위로와 힘을 얻는다”고 말했다.

한국오픈도어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은 후원금은 지하교회 리더 격려, 지하교회 성도의 생활·의료·법률·목회 지원, 박해 대비 훈련 제공, 구호 물품 및 기독교 서적 보급,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 진행 등에 쓰인다고 밝혔다. 캠페인에는 일시 후원(신한은행 100-027-219169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및 정기 후원(<https://gomissionfund.org/card2026>)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지희 기자

선교칼럼 'AI(인공지능) 시대, 중국을 다시 읽다(3)'

선교중국운동의 긍정적 공헌과 한계 및 과제

선교중국운동의 긍정적 공헌은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중국교회의 선교적 정체성 및 주체성 확립이다. 수동성에 갇혀 있던 중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사명(Great Commission)의 자각을 심어주었다. 이는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선교적 동원을 끌어내는 강력한 영적 동력이 되었다.

둘째, 문화적·지정학적 자산의 발견이다. 세계에 퍼져 있는 수천만 명의 화교(華僑) 네트워크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서구 선교사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이슬람권,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소위 10/40 장) 지역에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강력한 플랫폼을 제공했다.

셋째,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선교의 신기원이다. 기독교의 인구학적 중심축이 서구 북반구에서 비서구 남반구로 이동하는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서, 중국교회는 막대한 인적 자원과 영적 역동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우스 선교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했다.

하지만 선교중국운동의 한계와 과제도 적지 않다. 첫째, 낭만적 승리주의적 중국 이해의 위험이다. 초기 선교중국운동은 “중국인 선교사를 이슬람권으로 보내겠다”라는 식의 선전과 승리주의적 수사에 매몰되었다. 중국 내부의 극심한 지역 간 격차, 세대 간 갈등, 도시-농촌 가정교회의 신학적 괴리 등 복잡다단한 현실을 낭만화하는 한계를 보였다.

둘째, 인프라 및 선교 구조의 결여다. 선교적 열정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파송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했다. 전문적인 타문화권 언어 훈련, 문화인류학적 적응 교육, 국제 금융 규제를 우회할 선교 재정 송금 체계, 선교사 자녀(MK) 교육, 그리고 위기관리 시스템 등이 부재하여 현지 파송 선교사들의 대규모 탈진 등 시행착오를 겪었다.

셋째, 글로벌 선교 커뮤니티와의 고립성이다. 일부 운동은 세계교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이나 기존 선교단체들의 축적된 노하우를 학습하기보다, 중국교회 독자적으로 과업을 완수하겠다는 ‘영적 민족주의(Spiritual Nationalism)’ 양상을 띠어 고립을 자초하기도 했다.

2020년대 들어 중국선교 환경을 규정하는 가장 지배적인 변수는 정치적 이념을 넘어,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권위주의(Digital Authoritarianism)’와 차세대 기술의 결

합이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AI, 빅데이터, 안면인식, 블록체인 기술을 사회통제와 거버넌스에 가장 완벽하게 내재화한 국가다. 현재 중국의 디지털 통제 구조는 선교의 지평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중국인들의 일상은 위챗(WeChat, 微信)과 알리페이(Alipay, 支付宝)라는 슈퍼 앱(Super App)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 메신저, 결제, 금융, 교통, 행정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된 이 생태계에서 국가사이버공간관리국은 고도화된 알고리즘 검열을 시행한다. 종교적 키워드는 실시간으로 필터링되며,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콘텍스트 분석 AI를 통해 즉각적으로 감지되어 계정이 차단되거나 수사 대기 명단에 오른다.

중국 정부는 사이버보안법(2017년), 데이터보안법(2021년), 개인정보보호법(2021년)의 삼각 편대를 통해 대륙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디지털 발자국을 국가의 통제 아래에 두었다. 2022년 3월 1일 시행된 ‘인터넷 종교정보 서비스 관리방법’은 온라인 종교 활동 규제에 있어 역사적 분수령이 되었다. 국가종교사무국, 국가사이버공간관리국, 공안부, 국가안전부 등이 공동 제정한 이 법안은, 정부 인가를 받지 않은 모든 온라인 종교 활동을 전면 불법화하였다.

특히 외국 기관 및 개인은 허가 없이 중국 내에서 온라인 종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원천 금지된다. 중국은 서구 생성형 AI의 진입을 막고, 바이두의 에니봇(Ernie Bot, 文心一言) 등 자국산 모델을 고도화했다.

국가 사이버공간관리국은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규정을 통해 “AI가 생성하는 모든 콘텐츠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라고 못 박았다. 기독교 신학이나 성경 해석 역시 이 AI 필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검열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중국 전역에 설치된 수억대의 스마트 CCTV는 안면인식 AI와 연결되어 보행자의 걸음걸이 만으로도 신원을 식별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더해 개인의 준법정신, 소비 패턴, 소셜미디어 발언 등을 종합하여 점수화하는 사회적 신용 시스템은 기독교인이나 가정교회 리더들의 사회적 이동권과 경제 활동을 무형으로 압박하는 가공할 도구가 되었다. <계속>

중국인 사역자 쑤빈(중국을주께로)

미션파트너스 PSP, 2026년 가을학기 9월 온·오프라인 개강

“모든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열정과 부르심 재확인할 것”

미션파트너스(대표 한철호 선교사)가 오는 9월 퍼스펙티브스(PSP) 2026년 가을학기 온·오프라인 클래스를 전국 및 해외에서 동시 개강한다.

PSP 선교훈련은 세계 기독교 운동과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경역사·문화·전략적 관점을 통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도록 돕는 기본적인 고체적인 국제 선교훈련 프로그램이다. 국내에서는 총 3만 5천 명의 수료생

을 배출했다.

미션파트너스는 오는 9월을 기점으로 서울·경기 지역을 비롯해 대전, 세종, 대구, 부산 등 전국 지역과 싱가포르, 미주 등 해외 클래스를 포함한 다수의 훈련 과정을 개설했다. 각 과정에는 선교사와의 만남, 선교 세미나 등 참가자의 선교적 경험을 위한 특별활동도 포함됐다.

훈련 방식은 수강생의 환경과 필요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화했다. 오프

라인 클래스는 12주간 강의 및 소그룹, 온라인 클래스는 13주간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강의 및 온라인 소그룹, 하이브리드 클래스는 13주간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소그룹으로 각각 진행된다.

대표적인 오프라인 클래스는 △서울 월요반(9월 7일부터 저녁 7시 2호선 합정역 서현교회) △서울 화요일반(9월 8일부터 저녁 7시 서초역남부터미널역 주은혜교회), 온라인 클래스는 △화요일반(9월 8일 저녁 7시 30분) △주말반(9월 13일 저녁 7시 30분)이 준비됐다.

교회 내 자체 클래스 개설 문의도 가능하다.

미션파트너스는 “이 훈련을 통해 참가자들은 선교적 열정과 부르심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수료생에게는 프론티어 벤처스(Frontier Ventures)에서 인증하는 수료증을 발행한다. (www.psp.or.kr, 미션파트너스 사무국 02-889-6400)

이지희 기자



World Vision

월드비전은 전 세계 가장 취약한 아동·가정·지역사회가 빈곤과 불평등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모든 파트너와 함께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글로벌 NGO입니다.



월드비전 후원 문의

02-2078-7000, www.worldvision.or.kr

“청년들, SNS 통해 기독교 접하지만 신앙 결단은 인간관계가 결정적”

英 성공회 보고서

소셜미디어(SNS)가 젊은 세대에게 기독교를 접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교회에 정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데에는 그리스도인과의 인간관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성공회(Church of England)가 의뢰하고 싱크탱크 테오스(Theos)가 수행한 연구보고서 ‘영국 성공회에서 젊은 성인들이 신앙에 이르는 여정(Understanding Young Adult Journeys to Faith in the Church of England)’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5년 동안 처음으로 성공회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18~30세 청년 30명의 신앙 여정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오늘날 청년들이 영적으로 열린 마음을 갖고 삶의 의미를 찾고 있으며, 기독교에 대한 관심은 온라인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신앙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계기는 실제 그리스도인과의 만남이었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많은 참가자들은 틱톡(TikTok), 인스타그램(Instagram), 유튜브(YouTube), 팟캐스트, 온라인 간증 영상 등을 통해 처음 기독교를 접했다. 또 일부는 SNS에서 기독교 변경 콘텐츠나 성경 관련 게시물을 우연히 접하면서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러나 대부분은 온라인 콘텐츠만으로 곧바로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았으며, 친구나 교사, 대학 채플린, 연인, 룸메이트, 지인 등 주변의 평범한 그리스도인들과의 만남이 교회로 향하는 계기가 됐다.

보고서는 “사람들을 움직인 것은 기독교의 진리를 설득하려는 노력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보여준 사랑과 기쁨, 관대함, 친절이었다”고 분석했다.

25세 여성 베키(Becky)는 아들을 돌봐주던 아이돌보미가 지역 성공회 사제의 아내였던 것을 계기로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분에게서 사랑과 평안을 보며 ‘도대체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만드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생겼다”며 “아들을 돌봐주는 것뿐 아니라 마치 나를 위해서도 함께해 주는 사람처럼 느껴졌고, 결국 그분이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었다”고 회상했다.

20세 대학생 밀리(Millie)도 대학에서 만난 기독교인 친구들의 친절함이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말했다.

그는 “기독교인 친구들은 항상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늘 미소를 지었다”며 “이들과 함께 있으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았다”고 말했다.

연구는 인터뷰 참가자들이 종교 자체를 거부하기보다 다양한 세계관과 신념을 탐색한 끝에 기독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약 3분의 1은 청소년 시절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 등 ‘신무신론(New Atheism)’의 영향을 받아 무신론자가 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여성 참가자들 가운데는 점성술, 끌어당김의 법칙(manifestation), 타로카드, 수정(crystal) 등 뉴에이지 영성을 경험한 뒤 기독교로 돌아선 사례도 적지 않았다.



©Pixabay

많은 참가자는 온라인에서 기독교 콘텐츠를 접한 이후 스스로 성경을 읽고 C.S. 루이스(C.S. Lewis), G.K. 체스터턴(G.K. Chesterton) 등의 저서를 탐독하며 신앙을 탐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대주의적 문화 속에서 객관적인 진리와 도덕적 기준을 찾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당수는 논리적인 변증보다 성경 자체를 읽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증언했다.

제이크(Jake)는 SNS에서 성경을 언급하는 영상을 본 뒤 직접 성경을 구입했고, 읽기 시작하자 말씀이 자신이 겪고 있던 어려움을 직접 말해주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전했다.

또 다른 참가자들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성경을 빌려 읽었다가 시편과 복음서를 통해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교회에 처음 출석하기도 전에 신앙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불안과 외로움, 질병, 사별, 개인적인 위기 등을 경험한 이후 하나님을 찾게 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회를 통해 정신적 어려움과 불안, 외로움이 완화됐으며, 기도 응답이나 꿈 등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믿는 개인적인 경험도 신앙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공통적으로 삶에서 부족했던 무언가를 교회 안에서 발견했으며, 공동체뿐 아니라 예배와 새로운 삶의 목적에도 큰 매력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전도가 기독교를 접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지역교회의 역할은 여전히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8세 직장인 라이언(Ryan)은 “교회는 나에게 집과 같은 공간이었고, 정체성과 공동체를 제공했으며 이전보다 삶의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하도록 도와줬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복음주의 교회와 앵글로 가톨릭 교회 가운데 어느 곳을 선택했든 공통적으로 ‘확신’, ‘진지함’, ‘진정성’이 있는 예배에 끌렸다고 답했다.

한편 연구진은 영국 성공회의 온라인 영향력이 로마가톨릭교회나 독립 기독교 콘텐츠 제작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공회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신앙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보고서는 영국 사회가 대규모 종교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대신 일부 청년층 사이에서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개방성(emerging openness)’이 나타나고 있다고 신중하게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한 오늘날 영국에서는 기독교와 성경에 대한 기초 지식이 크게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베키는 “어릴 때는 기독교가 광신적이고 사이비 같은 것이라고 배웠다”며 “성경을 읽어본 적도, 찬송가를 불러본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24세 돔(Dom)은 “우리 세대에는 성경 이야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예수님이 존재했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정도만 알 뿐, 그 외에는 거의 아는 것이 없다. 부모 세대조차 성경 이야기를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은 거의 세 세대에 걸쳐 교회 출석이 일상이 아니었던 사회가 됐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교회가 기독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데 고치지 말고, 새로운 방문자들이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도록 환영하는 문화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 사역에서는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새로 온 청년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행사에 초청하며 교회 의사결정 과정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교구회의와 총회 등에 학생과 청년 대표를 더 많이 참여시켜 젊은 세대가 교회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구에 참여한 청년들은 영국 성공회가 국가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자신 있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고교회나 저교회(high or low church traditions), 보수와 진보 여부를 떠나 대부분의 참가자가 이 같은 견해를 공유했다”며 “영국 성공회는 자신의 역사와 전통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이를 다음 세대와 사회에 자신 있게 전해야 한다고 청년들은 생각하고 있었다”고 결론 지었다.

영국 성공회 비전·전략팀의 닉 셰퍼드(Nick Shepherd) 박사는 “젊은 성인들이 신앙을 탐색하고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며 “이번 연구는 이러한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고, 교회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보고서는 영국 성공회와 함께 신앙 여정을 시작한 청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앞으로 신앙을 찾게 될 이들과도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지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멕시코 복음주의 기독교인 수백 명, 성별 정정 법 개정 반대 행진

멕시코 치아파스주에서 복음주의 기독교인 수백 명이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간) ‘가치 수호를 위한 시민 대행진(Grand Citizens’ March for Values)’에 참여해 최근 주 의회가 통과시킨 성별 정정 관련 민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현지 일간지 엘 솔 데 치아파스(El Sol de Chiapas)에 따르면 이번 행진은 기독교 단체 ‘아비반도 아 멕시코(Avivando a México A.C.)’가 주관했으며, 여러 기독교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시위대는 치아파스주 주도인 톱스틀라 구티에레스의 ‘5월 5일 공원(Parque 5 de Mayo)’에서 출발해 중앙공원(Parque

Central)까지 행진한 뒤 성명을 발표하고 에두아르도 라미레스 아길라(Eduardo Ramírez Aguilar) 주지사에게 대화를 요청했다.

또한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집권여당 모레나(Morena) 소속 마리아 이사벨 로드리게스 히메네스(María Isabel Rodríguez Jiménez) 의원도 행진에 동참했다.

행진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비반도 아 멕시코 대표 마르코 톨리오 카라스코사(Marco Tulio Carrascosa)는 이번 행사가 특정 집단과 대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가해자로 비난받고 있는 수호자들”이라며 “우리는 대립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지만, 무언가가 일방적으로 강요될 때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종교와 관계없이 가족을 지키고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뜻을 함께하는 모든 시민에게 행진 참여를 개방했다”고 밝혔다.

로드리게스 히메네스 의원도 행진에 앞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사람의 어머니이자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가족들을 지지하기 위해 참여한다”고 밝혔다.

그는 REC미디어(REC Media)를 통해 공개한 메시지에서 “이번 행진은 정당이 나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와 가족, 무엇보다 어린이의 최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행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집회는 멕시코 주요 언론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엘 유니베르살(El Universal)은 주최 측이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가족과 아동 보호의 날’과 ‘평화를 위한 주 기도의 날’ 제정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라 호르나다(La Jornada)는 참가자들이 가족을 수호하는 구호를 외치며

톱스틀라 구티에레스 시내 주요 도로를 행진했으며, 주최 측이 앞으로도 주정부와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 6월 30일 치아파스주 의회가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작됐다.

개정안은 성인이 의료 진단이나 호르몬 치료, 성전환 수술 없이도 행정 절차만으로 법적 이름과 공식 신분증상의 성별 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치아파스주 의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이 개인의 정체성, 평등, 인간의 존엄성, 사생활 보호, 차별금지, 인격의 자

유로운 발현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 법률을 헌법 원칙과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행진은 해당 개정안 통과 이후 복음주의 기독교계가 보여준 첫 대규모 공개 대응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주최 측은 앞으로도 주정부와의 대화를 지속하는 한편 가족을 강화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아파스주에서는 이번 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경 기자



**의 성 군**

항공물류중심 공항도시

의성에서 만들어갑니다.

굿네이버스,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 자립지원 격차 해소 입법 제안

백선희 의원실과 정책 간담회 개최...

자립지원 의무화·자립수당 법정화 촉구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가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과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청년 사이에 발생하는 자립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을 제안했다.

굿네이버스는 백선희 국회의원과 함께 30일 국회에서 '보호체계 간 자립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보호시설의 유형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자립지원 실태를 살펴보고,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이 보호 종료 이후 겪는 지원 공백을 해소할 입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참석해 자립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을 전했다. 굿네이버스는 현장과 당사자의 의견을 토대로 마련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제안서를 백선희 의원실에 전달했다.

◆보호체계 따라 자립수당·정착금 지원 달라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청년과 마찬가지로 보호자 없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만, 적용되는 자립지원 제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에 대한 자립지원을 의무가 아닌 재량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 등 주요 지원도 법령이 아니라 예산 자립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슷한 보호 경향을 가진 청년이라도 어느 시설에서 생활했는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지원 여부와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적 격차가 이어



굿네이버스는 백선희 국회의원(조국혁신당)과 함께 '보호체계 간 자립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굿네이버스와 백선희 의원이 '보호체계 간 자립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제안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굿네이버스

지고 있다고 굿네이버스는 설명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간 자립지원 체계의 차이와 보호 종료 이후 지속적인 사례관리의 부재, 자산 형성과 경제적 지원의 한계 등

을 공유했다. 이들은 보호 종료 직후부터 주거와 생계, 취업, 정서적 지원을 함께 제공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립지원 의무화·사후관리체계 구축 제안

굿네이버스가 제시한 개정안에는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에 대한 자립지원 의무화와 자립수당 지급 의무 및 지급기간 법정화 방안이 포함됐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자립정착금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최소 지원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보호 기간 중 청년별 자립지원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퇴소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의 적용 대상을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굿네이버스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보호시설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보호경험 청년이 동등한 수준의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사자 '보호 끝난 뒤에 지원 더 필요했다'

청소년복지시설 출신 당사자 단체 '브

릿지유스' 소속 청년은 "지원이 필요한 순간은 보호를 받고 있을 때보다 오히려 보호가 끝난 이후였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이 달라지지 않고, 모든 보호경험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백선희 의원은 "자립지원은 과거의 보호 이력이 아니라 청년이 처한 현재의 상황과 필요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주거와 일자리, 정서적 지원 등 개인별 여건을 세심하게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마련될 때 비로소 청년 자립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수연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사업본부장은 "자립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현장의 경험과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은 이번 제안이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이어져 모든 보호경험 청년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승연 기자

세이브더칠드런,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 아동 6천여 명 지원

연쇄 지진 한 달간

1만2천886명 지원...

의료·식수·아동친화공간 운영

세이브더칠드런이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 발생 이후 한 달 동안 현지 협력기관과 함께 아동 6천여 명을 포함한 주민 1만2천여 명을 지원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 지역에서 아동 6천79명을 포함한 총 1만2천886명에게 보건의료와 식수·위생, 아동보호, 교육 등의 긴급구호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4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규모 7.2와 7.5의 연쇄 지진으로 약 180만 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 가운데 아동은 약 68만 명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1만6천700명 이상이 다쳤고, 2만3천300명 이상이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수천 명이 비공식 텐트촌에 머물고 있으나 깨끗한 물과 화장실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이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지역에서 현지 파트너와 함께 운영하는 이동식 진료소. ©세이브더칠드런

◆지진 한 달 지나도 아동 불안 증상 지속

지진 발생 한 달이 지났지만 일부 아동은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작은 소리에도 놀라는 등 불안 증상을 보이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재난으로 인한 물리적 피해뿐 아니라 아동이 겪는 정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심리사회적 지원과 보호 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향후 1년 동안 아동 20만 명을 포함한 총 35만 명을 지원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와 식수·위생, 아동보

호,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베네수엘라 강진 긴급구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지 협력기관이 운영하는 이동식 진료소를 통해서도 4천37명 이상에게 의료 서비스와 의약품 등을 제공했다.

◆식수·위생시설 설치하고 아동친화공간 운영

세이브더칠드런은 피해 지역에 식수와 위생시설을 설치해 3천763명이 깨끗한 물과 위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2천647명에게 가족용 위생키트 558개를 전달했다. 위생키트는 대피 생활을 이어가는 가족들이 기본적인 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됐다.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놀이와 학습 활동에 참여하고 심리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친화공간 4곳도 운영하고 있다.

아동친화공간을 비롯한 아동보호교육 활동을 통해 3천509명을 지원했으며, 장애 아동과 신경다양성 아동을 위한 전문 지원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긴급 지원과 장기 회복 함께 필요"

마리아 메르세데스 라에바노 세이브더

칠드런 베네수엘라 사무소장 대행은 아동들이 여전히 집과 학교,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워하며 지진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슬픔을 안고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재난으로 인한 신체적·정서적 상처는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렵다며, 아동

을 위한 보호와 심리사회적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에바노 사무소장 대행은 "보건의료와 식수, 영양, 임시 주거 등 긴급 지원과 함께 장기적인 회복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승연 기자

월드비전, 에콰도르 기후·보건 위기 대응 GCF 사업 개발

월드비전이 에콰도르의 기후변화로 인한 보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GCF) 사업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월드비전은 지난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에콰도르 월드비전 사무소에서 'GCF 기후적응형 보건 사업 디자인 검증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현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GCF 사업구상안인 컨셉노트를 구체화하고, 향후 본 제안서 개발과 사업 승인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검증 단계로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에콰도르 환경부와 보건부, 부통령실 등 정부 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역학 전문가와 아마존 이카암 국립 지구과학대학, 미주개발은행 보건 전문가, RTI 인터넷서널 등 국제기구 및 기술협력기관 관계자 25명이 참석했다. 한국월드비전에서는 김은석 보건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월드비전 인터넷서널의 기후환경 기술 총괄도 함께했다.

워크숍 첫날에는 에콰도르의 기후변화 대응 우선과제와 GCF 기후적응형 보건 사업의 추진 배경이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기후변화가 에콰도르 주민과 아동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보건 분야의 대응 필요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점검했다.

기후·보건 데이터와 기후위험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토대로 사업 대상 지역과 취약계층을 선정하는 기준도 검토했다. 이와 함께 세부 사업 활동과 기관별 역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월드비전은 이번 과정을 통해 기후 위험이 높은 지역과 취약계층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지역사회 보건서비스와 연계할 사업 방향을 정리했다.

둘째 날에는 기후정보를 보건 대응에 활용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기존 보건 감시 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기후와 보건 데이터를 연계해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는 협력 모델을 논의했다. 수집된 정보를 관계 기관과 지역사회에 신속하게 전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워크숍에서는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보건 분야 기후적응 활동을 강화하고, 기후·보건·영양 데이터를 통합해 질병 감시와 조기경보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보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 간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지역사회 주도의 기후적응형 보건 활동 강화와 기후·보건·영양 데이터 통합, 질병 감시 및 조기경보 체계 개선, 기후민감 보건위험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GCF 사업구상안의 핵심



월드비전이 에콰도르에서 개최한 'GCF 기후적응형 보건 사업 디자인 검증 워크숍'에서 에콰도르 정부 관계자와 국제기구 전문가들 등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월드비전

과제로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에콰도르 정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해 사업 방향을 함께 설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 같은 참여와 협력의 장을 마련한 월드비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이번 워크숍은 에콰도르 정부와 파트너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로 인한 보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보건 데이터의 연계와 지역사회 중심의 대응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사업구상안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승연 기자

대표님!

브리티 코파일럿으로

회사의 성장동력에 날개를 다십시오

성장은 언제나 혁신으로부터, 기업 최적화 생성형 AI가 업무 방식을 혁신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가장 잘 이해하는 생성형 AI,

브리티 코파일럿과 함께라면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Brity Copilot

데이터 분석, 초안 작성 등 편리한 오피스 기능 | 강력한 검색 기능 | 믿을 수 있는 보안 | 실시간 자막, 회의록 작성 등 편리한 회의 지원 | SEAMLESS하고 쉬운 사용성

SAMSUNG SDS

AI 시대, 기독교인이 새겨야 할 3가지 경고

알고리즘은 구원자가 아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마이클 유세프(사진)의 기고글인 '모든 그리스도인이 AI에 영적 질문을 던지기 전에 알아야 할 세 가지 경고'(3 warnings every Christian needs before asking AI spiritual questions)를 8월 1일(현지시각) 게재했다.

이집트 출신의 신학박사 마이클 A. 유세프는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사도교회(Church of The Apostles)의 담임목사이자, 190개국에 방송되는 라디오 프로그램 '디빙 더 웨이'의 설립자이다. 그는 무어 신학교, 풀러 신학교, 에모리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았으며, 50권이 넘는 저서를 집필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한 아이가 한밤중에 거대한 도서관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그곳에는 수백만 권의 책과 번쩍이는 화면이 있고, 모든 질문에 즉시 대답하는 목소리들이 있다. 그러나 사서도, 목회자도, 목사도 없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오류인지 일러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이 인공지능(AI)에 영적 인 질문을 던질 때 들어서는 세계가 바로 이와 같다. 그러므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2026년 7월 21일 바나그룹이 발표한 「새로운 바나 데이터: 실천적 기독교인들의 빠른 AI 도입」 보고서에 따르면, 이른바 '실천적 기독교인'(practicing Christians)은 일반 미국인보다 AI를 훨씬 자주 사용하고 있다.

미국 성인 전체의 31%가 개인 생활에서 AI를 '매우 자주' 또는 '자주' 사용한다고 답한 반면, 실천적 기독교인 가운데서는 그 비율이 44%에 달했다. 직장에서도 미국 성인 전체의 26%가 AI를 자주 사용한다고 답했지만, 실천적 기독교인은 39%가 AI를 활용하고 있었다.

실천적 기독교인의 거의 절반은 자신의 영적 성장을 AI에 맡길 수 있다고 답했다. 약 3분의 1은 최근 한 달 동안 영적 조언이나 성경 관련 질문을 위해 AI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3명 중 1명은 AI 활용에 관해 목회자의 지도를 원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충분히 준비돼 있다고 느끼는 목회자는 12%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이제 질문은 "기독교인들이 AI를 사용할 것인가"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AI를 사용하고 있다. 교회는 도구를 사용하되 그 앞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새로운 도구 자체를 무조건 두려워하지 않았다. 인쇄술은 성경의 대량 보급을 가능하게 했고, 라디오는 복음을 각 가정으로 실어 날랐다. 위성 텔레비전은 닫힌 국가들에 성경적 메시지를 전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도구는 끝까지 도구로

남아 있어야 한다.

필자는 다보스포럼과 'AI 종교'에 관한 글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우리는 AI를 종으로 부리는 것이지, 구원자로 환영하는 것이 아니다." 최종 권위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진정한 스승은 AI 모델이 아니라 성령이시다. 지역교회의 신실한 목회자는 디지털 비서로 대체할 수 있는 영적 장식품이 아니다. 그는 그리스도 아래에서 양 떼를 맡은 목자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요일 4:1)고 명한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함께 싸우라"(유 1:3)고 권면하며,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경고한다(마 6:24).

AI는 검색을 돕고 정보를 정리할 수 있다. 설교를 찾고, 특정 주제를 요약하며, 관련 성경 구절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AI는 사랑을 구원할 수 없다.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 수도 없다. 십자가에서 죽을 수도 없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수도 없다. 도구는 사람을 진리로 안내하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결코 진리의 근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유발 하라리(Yuval Harari)는 다보스포럼에서 법과 책, 심지어 종교를 포함해 "단어로 이루어진 모든 것이 AI에 의해 장악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필자는 저서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에서 AI가 설계한 종교와 AI가 쓴 '성경'이 사람들을 속이기에 충분한 만큼 그럴듯한 기독교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는 교묘히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치명적이면서도 매혹적인 타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에는 어느 때보다 예리한 분별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문제다.

다음 세 가지 경고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경고 1: 매끄러운 답변이 성경적 진리를 왜곡할 수 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 있다. "답변이 충분히 기독교적으로 들리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그러나 가장 위험한 오류는 언제나 노골적인 거짓말의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는다. 오히려 부분적인 진실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문장은 그럴듯하고 어조는 부드럽다. 답변은 균형 잡힌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빠져 있을 수 있다.

연구자들은 이미 이러한 문제를 수치화하려 했다.

제이슨 오언(Jason Owen)은 2026년 학술지 『AI와 윤리(AI and Ethics)』에 발표한 「AI 생성 답변에서 나타나는 교리적 편향과 현상 탐지」를 통해 거대언어모델이 교리적으로 민감한 기독교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교리문답과 신앙고백서, 신경, 교단 선언문 등을 바탕으로 교리적 지식 기반을 구축했다. 이어 권위와 삼위일체, 구원론과 성례전, 종말론과 인간론, 교회론과 기독교 윤리 등 여덟 영역



©ChatGPT

에서 576개의 교리적 주장을 추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AI 모델이 특정 교리를 설명할 때 개별 문장 자체는 대체로 정확했다. 그러나 해당 교리가 실제로 가르치는 핵심 요소를 지속적으로 누락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를 '교리적 평탄화(doctrinal flattening)'라고 부른다.

AI 시스템은 특정 신앙을 '기독교인 전체의 믿음'으로 뭉뚱그리는 경향이 있다. 복잡한 전통과 교리적 차이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약으로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성례전과 종말론 관련 주제가 취약했고, 구원론과 성례전에서는 교리 왜곡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위험은 분명하다. 기계에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는가"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인터넷에 흩어진 종교적 콘텐츠의 평균값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갈등을 줄이고 누구도 불편하게 하지 않는 매끄러운 합의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엄밀함과 확신은 약화되고, 성경적 진리의 날카로운 부분은 둥글게 깎일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온라인 종교 콘텐츠의 평균이 아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 은혜와 구원, 거룩함과 심판,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관한 진리다.

무해한 교리적 오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작은 일탈이 사람을 더 큰 미혹으로 이끌 수 있으며 속도가 지체를 뜻하지 않으며, 정보가 곧 진리는 아니다.

◆경고 2: AI는 정보를 줄 수 있지만 영혼을 돌볼 수 없다

목양에는 결코 흐려져서는 안 되는 분명한 경계가 있다. AI는 정보를 제공하고 대화를 흉내 낼 수 있다. 성경 구절을 찾아주고 여러 해석을 비교하며 성경공부 질문을 제안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목회적 돌봄은 단순히 종교적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 아니다.

목자는 양을 안다. 아기가 오는지 살피고, 사랑으로 교정하며, 눈물로 기도한다. 죄에 맞서고 고통받는 이를 위로하며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영혼

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행 20:28)고 권면했다.

베드로는 목자장 아래 있는 장로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라"(벧전 5:2)고 명했다. 히브리서는 영적 지도자들이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같이 한다"(히 13:17)고 말한다.

그러나 기계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챗봇은 예배당 한쪽에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알아채지 못한다. 교회 권징을 시행할 수도 없고, 새 신자에게 세례를 베풀 수도 없다. 성찬을 접례하거나 병상 곁에서 죽어가는 사람의 손을 잡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눈물로 권면할 수도 없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아래에서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짊어질 수 없다.

교회 지도자는 자신과 양 떼를 함께 살피야 한다. 자신의 영적 성숙을 방치한 채 다른 사람을 온전히 돌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목양이다. 목양은 육신을 지닌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성경적 사역이다.

◆경고 3: 모든 '기독교' 앱이 신실한 목자들에게 의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신앙 앱은 목양을 대체할 수 없다. 모든 '기독교' 앱이 신앙의 목자들에 의해 개발된 것은 아니다. 모든 영적 도구가 성경에 굳게 뿌리를 두고 있는 것도 아니다. 종교적인 언어로 포장된 모든 답변이 성경적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어떤 도구는 사람의 관심을 끌어 수익을 얻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또 어떤 도구는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 복음에 대한 헌신도, 교회를 향한 책임감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경외심도 없는 개발자들이 만든 도구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교리와 성경의 문제를 다룰 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평균적인 의견이 아니다.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며, 스

스로 모순되는 분도 아니다. 이 원칙은 설교단과 교실, 가정에 적용된다. 이제 우리는 채팅창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도구는 그리스도와 성경, 교회로 이름여야 한다.

긍정적인 소식이 있다면 교회가 기술을 무조건 피해 달아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 기술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기술이 걸걸로 새지 않도록 통제하고, 그리스도와 경쟁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출처가 중요하다.

'마이 페이스 어시스턴트(MY Faith Assistant)'는 사람들이 영적 질문을 던질 때 모호함을 벗어나 성경적 진리로 나아가도록 돕는다는 사역적 목적을 가지고 개발됐다. 이 도구는 인터넷에 떠도는 영적 의견을 모아 제공하는 일반적인 챗봇이 아니라, 사용자의 시선을 다시 성경으로 돌리도록 설계됐다고 소개된다.

그러나 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원칙이 있다. 어떤 도구도 성경과 지역교회, 개인의 기도와 묵회 상담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람들이 신앙의 다음 단계를 충실히 밟도록 돕는 하나의 디지털 길잡이일 수 있을 뿐이다.

길잡이라는 목적지가 아니다. 지도는 식사를 대신할 수 없으며, 좋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도구를 지혜롭게 사용하라.

질문을 던지고, 성경을 검색하며, 설교를 찾고, 성경공부 모임을 준비할 수 있다. 그러나 양심 전체를 기계에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분별력을 익명의 온라인 집단에 의지 쥘셔도 안 된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안에서 누리는 삶이 있는 교제를 자신만의 폐쇄적인 영적 확증편향과 맞바꾸지 말며 매일 말씀으로 돌아가라. 지역교회에 굳게 뿌리를 내리라.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모든 것을 성경으로 시험하라. 죄를 지었을 때는 신속히 회개하고 즉시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나는 누구인가?",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한 정보 요청이 아니다. 인간의 정체성과 죄, 구원과 영원에 관한 질문이다. 이 질문들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차가운 기계에서 찾고 있었다면 사랑으로 주는 이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어떤 알고리즘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오직 한 분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오직 한 분만이 무덤의 권세를 이기셨다. 오직 한 분만이 영생을 주실 수 있다.

예수님은 "나는 선했 목자라 선했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요 10:11)라고 말씀하셨다.

오늘 그분께 나아가라.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라. 선했 목자는 단순히 질문에 무미건조한 답변을 내놓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며,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품으시는 분이시다. 아무리 강력한 기술이라도 결코 그분을 대신할 수 없다.

최승연 기자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가계의 기회를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세출발기금

침재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저형용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 공유재산 개발
- OnBid (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조정펀드
- 기업구조조정채권(돈기업)
- 전국 선포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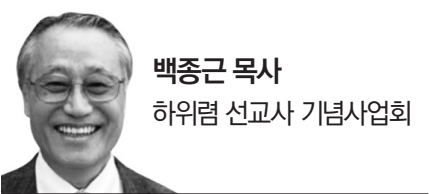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백종근 목사의 ‘하위럼 선교사 조선 선교행전’(20)

아내의 신병 치료를 위해 귀국하다(1912)



백종근 목사
하위럼 선교사 기념사업회

앞에서도 언급했듯 하위럼은 초임선교사들만 남아있던 목포에 부임해 양동교회 당회장과 영흥학교 교장, 게다가 스테이션 조성공사는 물론 순회 사역까지 맡아 하면서도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혼신의 힘을 다했다. 늦은 나이에 자녀를 얻었음에도 가족들과 함께 휴가 한번을 떠나 보지 못할 정도로 사역에만 매달려다 보니 자신은 물론 에드먼즈의 건강도 눈에 띄게 쇠약해지고 있었다.

상처累累 후 다시 만난 아내였기에 하위럼은 허약해진 에드먼즈를 자신의 건강보다도 더 염려했다. 그는 휴식을 취하라는 동료 선교사들의 권유를 처음엔 무시코 들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에드먼즈의 상태가 점점 악화하고 있어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다. 목포에 부임한 지 3년, 그는 다시 아내의 치료를 위해 미국행을 결정해야 했다.

하위럼은 이때부터 지부 내 여러 사역을 충격이 없이 인계하기 위해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먼저 동사목사였던 윤식명을 위임목사로 세우며 양동교회의 리더십 이양을 서둘렀다. 그리고 미국에 돌아가기 전 자신이 돌보고 있는 23개 교회를 전부 순회한다는 일정을 잡고, 강행군을 해 1911년 12

월 초순까지 자전거와 말을 타고 330마일을 여행하며 2회에 걸친 순회를 끝내면서 그해 4/4분기에만 해도 세례를 신성한 117명 가운데 64명에게 세례를 주고, 성찬을 베풀었다.

한편 그해 12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위럼은 군산지부를 방문해 10여 군데의 지역교회를 돌아보면서 9개 교회에서 성찬을 베풀고, 50명의 지원자 가운데 24명에게 세례를 주기도 했다. 아마도 그가 미국에 돌아가면 자신들의 체류가 길어져 어쩌면 조선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난날 사역했던 군산을 방문해 교회와 교인들을 둘러 보고자 했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 대목이다.

그달 중순에는 자신들의 부재로 인해 가장 염려가 되었던 영흥학교와 정명여학교를 맡아줄 니스벳 부부가 전주로부터 부임하자, 이때부터 그는 귀국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위럼은 윤식명 목사에게 교회를, 니스벳 부부에게 남녀 학교를, 순회 사역은 닉스Robert Knox/로라복과 맥컬리Henry D. McCallie/맹현리에게, 그리고 병원은 오웬의 후임으로 부임한 하딩Maynard C. Harding과 군산 구암병원에서 사역하던 오금선에게 맡기면서 스테이션의 공백을 메꾸어놓았다.

한편 3살과 1살짜리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부산까지 이동하는 것조차 힘이 들 정도로 쇠약해진 에드먼즈를 위해 니스벳 부부가 동행하겠다고 나섰는데 순전 선교지부



하위럼의 가족사진

고라복Robert T. Coit 선교사는 이때의 하위럼 부부의 건강상태를 일본에 있는 친구 카메론Cameron Johnson에게 편지하면서 ‘하위럼 선교사 내외가 어쩌면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기약 없는 귀국이 될 것 같다’라며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KMF 편집장을 맡고 있던 릴리아스Lillias H. Underwood 선교사 역시 하위럼 부부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교잡지에 공지하면서 그들이 회복되어 속히 조선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했다.

1912년 연초에 미국으로 돌아간 하위럼 선교사 내외는 잠시 오레곤에 머무르며 요양하다가 고향에서 가까운 켄타키주 루이빌로 거처를 옮겼다. 3년이 지난 1915년에 다시 조선에 복귀하면서도 허약한 몸을 격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후로도 두 사람은 건강 문제로 인해 선교사역 내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몬트리트에서 열린 선교사 대회에 참가하다(1913/1914)

그는 신병 치료차 미국에 머무는 동안에도, 자나 깨나 관심은 늘 조선에 있었다. 1913년 노스캐롤라이나 몬트리트(Montreat, NC)에서 남장로교 해외선교사 대회(8/13~8/17)가 개최될 때도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참가해 조선 선교의 개황을 보고하고, 조만간 추수를 대비해야 할 교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조선의 교회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그 이듬해인 1914년에도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대회(8/12~8/16)에도 순천지부 고라복Robert T. Coit 선교사와 함께 참가해 조선 선교의 상황을 설명하는 연사로 나서기도 했다. 그때 먼저 등단한 고라복Robert T. Coit 선교사는 조선 복음화 과정을 보고하기에 앞서 먼저 내한 선교 25년 동안 조선에 일어났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놀라운 변화는 단지 철도가 놓이고 증기선이 다닌다거나 전화, 은행, 학교의 설립이 아니라 25만 명의 교인이 생겨난 사실’이라고 강조하고, 그는 조선에서의 비약적인 선교 효과는 바로 복음에 대한 조선인의 겸손한 수용성에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나아가 그는 조선 복음화의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열려있는 선교의 문이 언제 어떻게 일제에 의해 닫힐지도 모르기 때문에 미국 교계에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연이어 등단한 하위럼은 미국 역사상 조선에 제일 먼저 접촉했던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예로 들면서 그들이 조선의 왕릉을 도굴하려 했던 적이 있음을 지적하고 당시 이 일로 분노한 조선 조정에서는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우고 모든 선원의 목을 베어 대동강에 수장시키고, 제너

럴 셔먼호의 닻을 때어내 평양 서문에 전시해 둔 것을 언급했다. 미국에서는 이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사절을 파견해 조선과 공식적인 대화를 시작했지만, 무엇보다도 미국은 ‘당시 조선이 외국인에 대해 어떠한 감정을 품고 있었는지를 먼저 이해했어야만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일에 대한 미국 정부의 단일한 대처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서 조선 선교의 현안과 조선 교회의 미래를 설명하면서 비록 미국의 교파주의 때문에 조선에 하나의 개신교를 세우는 일이 불가능했다 하더라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교파 간의 예양협정을 통해 갈등과 다툼이 없이 교회의 일치를 이루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했다.

◆고비를 딛고 다시 한국으로
해외선교사 대회가 열렸던 그해(1913) 연말쯤 하위럼은 아내의 건강이 나이지고 있음을 선교부에 알렸다. 그는 이번 겨울에 조선으로 돌아가길 원하지만 늦어도 이듬해 봄까지는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그동안 전해 들지 못했던 내한 선교부의 소식을 몰으며 귀환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했다.

“우리는 조선으로 돌아가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조선에서 들리는 모든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며, 우리는 지난 6월 30일로 마감하는 한해의 마지막 통계를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위럼의 기대와는 달리 1914년 봄이 되어도 에드먼즈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1914년 9월이 되어서야 해외 선교부에서는 의사들의 말을 인용해 에드먼즈의 회복 소식을 신고, 2년

전 에드먼즈가 미국에 돌아올 때 만해도 그녀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들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으나 이번 가을까지는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는 해외 선교부의 예상을 단신으로 신기도 했다.

◆백종근 목사는
한국에서 공과대학과 대학원을 마치고 산업연구원(KIET)에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 미국에 유학 후 다시 신학으로 바뀌 오스틴 장로교 신학교(Austin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에서 M.Div 과정을 마치고 미국장로교(PCUSA)에서 목사가 되었다. 오레곤(Portland, Oregon)에서 줄곧 목회 후 은퇴해 지금은 피닉스 아리조나(Phoenix, Arizona)에 거주하고 있다. 지난 팬데믹 기간 남장로교 초기 선교역사에 매몰해 『하나님 나라에서 개벽을 보다』와 『예수와 함께 조선을 걷다』 두 권의 저서를 냈으며 그 가운데 하위럼 선교사의 선교 일대기를 기록한 『예수와 함께 조선을 걷다』는 출간된 지 일 년도 되지 않아 스탠포드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에 이어 시카고 대학 도서관 Koean Collection에 선정되어 소장되기도 했다.

백종근 목사는 하위럼 선교사 기념사업회를 설립해 초기 남장로교 조선 선교 역사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에서 설교와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다. 최근에도 남장로교 선교사 부위럼(William F. Bull)의 선교행적을 정리해 집필하는 한편 디아스포라 선교역사 연구회를 결성해 미주 한인 교회 역사를 찾아 복원하는 일에 빠져 있기도 하다.

바퀴벌레당이 던진 청년들의 절규



정재우 목사
세인트하우스 평택

인도에서 최근 세계의 이목을 끈 사건이 있었다. 이름부터 충격적이었다. ‘바퀴벌레당’(Cockroach Party)’ 처음에는 우스갯소리처럼 들렸다. 그러나 그 이름 뒤에는 웃음이 아니라 깊은 절망과 분노가 숨어 있었다.

이 운동은 청년들을 향한 모욕적인 표

현에서 시작되었다. 일부 공직자의 발언 속에서 청년들은 마치 사회에 부담만 주는 존재, 쉽게 짓밟아도 되는 존재처럼 취급되었다. 이에 분노한 인도의 Z세대는 그 멸칭을 오히려 자신의 이름으로 받아들었다. “그래, 우리는 바퀴벌레다. 그러나 아무리 짓밟아도 살아남을 것이다” 모욕을 저항으로, 절망을 연대로 바꾸어 낸 것이다.

사실 바퀴벌레는 인간에게 가장 혐오스러운 곤충이지만 약 3억 년 동안 지구 수 많은 환경 변화를 견뎌 낸 놀라운 생명력의 소유자다. 강한 번식력과 적응력, 그리고 생존력은 다른 생물들이 쉽게

흉내 낼 수 없는 능력이다. 그래서 바퀴벌레는 혐오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끝까지 살아남는 존재’라는 역설적인 상징이 되기도 한다.

인도의 청년들이 바퀴벌레를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들은 더 이상 무시당하는 세대가 아니라 살아남아 세상을 바꾸겠다는 세대임을 선언한 것이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을까?

청년들의 분노는 단순히 한 사람의 실언 때문이 아니었다. 만성적인 청년실업, 공무원 시험 부정 의혹, 극심한 취업 경쟁, 정치권의 부패, 사회적 불평등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었다. 그동안 쌓여 있던

불만이 하나의 상징을 만나 폭발한 것이다. 돌이켜 보면 이것은 인도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 청년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 속에서 살아간다. 좋은 대학을 졸업해도 안정된 직장을 보장받기 어렵다. 집값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고, 끝없는 비교 문화는 마음의 병을 키운다. 통계 속 숫자는 경제 문제를 말하지만, 청년들의 표정은 존재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 지금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공정한 출발선이며, 시혜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희망이다.

정치는 청년을 선거철의 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로 보아야 한다. 청년 일자리와 창업 생태계를 확대하고, 주거 부담을

줄이며, 교육과 채용의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 또한 정신건강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다루어야 한다. 청년 정책은 복지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한국교회 역시 이 문제 앞에서 자유롭지 않다. 많은 교회가 청년이 떠난다고 걱정하지만,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우리는 청년들의 아픔을 얼마나 들었는가?”이다.

교회는 설교만 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취업과 창업을 돕는 멘토링, 심리적 회복을 위한 상담, 세대가 함께 대화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을 미래의 교회가 아니라 오늘의 교회로 인정할 때 비로소 희망은 시작된다.

성경은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늙은

이들에게는 꿈을”(요엘 2장)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한다. 꿈을 잃은 청년은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한 나라의 위기이며, 한 세대의 절망은 공동체 전체의 상처가 된다.

인도의 ‘바퀴벌레당’은 결코 바퀴벌레를 찬양하는 운동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지 말라”는 청년들의 절규이다. 그 절규를 조종하는 사회는 미래를 잃고, 그 절규를 경청하는 사회는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된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정치 구호가 아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귀기울일 수 있는 귀이며,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줄 용기이다. 한 사회의 미래는 청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 대일 선교의 발자취: 열정과 공헌, 그리고 주도형 선교의 한계

[선교 칼럼 시리즈②] 일본 선교, '생활선교'로 다시 길을 찾다

안승오 교수

영남신대 선교신학 교수



한국교회는 역사적 아픔과 갈등의 상흔을 극복하고 “복음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치유한다”는 기록한 사명감 아래 지난 수십 년간 다각적인 대일 선교를 펼쳐왔다. 대형 문화집회부터 제자훈련, 미디어 방송, 현지 교회 개척, 단기선교, 인도적 구호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가 쏟아부은 열정과 헌신은 일본 선교 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대표적인 공헌은 ‘대형 문화전도 집회’와 ‘제자훈련 시스템’의 이삭이었다. 온누리교회가 주도한 『러브소나타』는 기독교에 거부감이 강한 일본인들에게 클래식, K-Culture, 간증을 결합한 최고 수준의 문화 이벤트를 선보임으로써 전도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도쿄, 오사카, 삿포로 등 주요 도시에서 30회 이상 개최되며 수십만 명의 일본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제공했고, 교파를 초월한 일본 현지 교회들의 연합 네트워크를 이끌어 냈다. 또한 사랑의교회의 『CAL 세미나』

는 고령화되고 위축된 일본 목회자들에게 “평신도를 깨운다”는 제자훈련 철학을 전수하여 교회 체질 개선을 도왔다.

미디어와 현지 개척 사역 역시 중요한 축이었다. 2006년 개국한 CGNTV 일본 지사는 24시간 일본어 기독교 방송을 통해 온누리 외톨이(하키코모리)와 고령층에게 영적 창구가 되어주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도쿄순복음교회를 비롯해 일본 전역에 수십 개의 교회를 개척하며 역동적인 성령 운동을 이식했고, 수많은 청년들이 한글교실과 아웃리치를 통해 현지 교회를 도왔다.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현장으로 달려가 보여준 한국 교회의 진정성 있는 봉사와 구호 활동은 마음을 단단히 일본 주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공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수행해 온 일본 선교의 기본 구조는 ‘한국교회 및 외지 선교사 주도(외부 투입형)’ 방식이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대형 자본과 인력을 동원한 프로그램 중심, 단기 행사 중심의 접근은 외부의 이벤트가 끝난 뒤 현지 교회가 스스로 소화해 내기에 벅찬 일회성 행사로 흘러갈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일본 사회는 타인의 사생활이나 영역을 침범하는 일, 그리고 외부 문화의 갑

작스러운 유입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는 특성(메이와쿠 문화)을 지닌다. 한국교회가 주도하는 과시형세물이식 선교 방식은 일시적인 관심은 끌 수 있을지 몰라도, 일본인 특유의 촘촘한 정서적 장벽과 세속화의 벽을 근본적으로 뚫어내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 화려한 프로그램이 지나간 자리에 현지 성도들이 여전히 수혜자나 관객으로 머물러 있다면, 외부 지원이 줄어들 때 선교 동력은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 현지 교회가 외부 선교사나 한국교회의 재정·인적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자생적이고 지속 가능한 선교 생태계가 구축되기 어렵다.

더욱이 포스트모더니즘과 강한 무종교 문화 속에서 “교회 인원 늘리기”나 “외부 영향력 이식”을 목표로 하는 기존 선교 전략은 한계에 부딪혔다. 열매가 더딘 일본 땅에서 사역하는 현지 목회자와 성도들은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무력감에 빠지거나, 단순한 ‘살아남기’에 급급한 명목상의 신앙으로 전락할 위험에 직면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한국교회가 주도권을 내려놓고, 일본 교회가 스스로 일어 서도록 돕는 선교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다. 외부에서 복음을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본 현지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 사명자로 사게 만드는 ‘내부 발현적 선교’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계속>

더 크고 위대한 꿈

다.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는 제목의 책임이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가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직책을 맡아 나라를 지킨 탁월한 경륜가였습니다.

그가 자서전에서 쓴 말 중에 나의 마음에 닿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더 크고 더 위대한 꿈을 꾸지 않았던 것이다〉

시몬 페레스는 25살에 벤구리온 수상의 비서로 시작한 정치가로서의 경력에 장관 10번, 총리로 3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의 추대를 받아 92세까지 제9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 협정을 맺은 공로로 1994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후회한 것 한 가지가 있으니 더 크고 더 위대한 꿈을 가지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서전 서두에서 말하였습니다.

〈기억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기억의 반대말은 상상이다〉

기억이 과거의 지난날을 회상하는 것이지만 상상은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기에 기억의 반대말이 망각이 아니라 상상이란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기억이 아닙니다. 상상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지난날에 대한 기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꿈꾸는 상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 크고 더 위대한 꿈을 지니고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길러 나가는 것이야말로 개인과 교회, 사회와 국가를 변영으로 이끄는 길잡이입니다.

12지파의 공식적인 대표 명단은 있는가?

여인갑 장로

시스코프 대표



여인갑의 바ibles 스토리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열두 지파인데, 막상 성경에 기록된 열두 지파의 명단은 항상 동일하지 않다. 어떤 곳에는 레위가 포함되고, 어떤 곳에는 제외된다. 어떤 곳에는 요셉이 등장하고, 다른 곳에는 요셉 대신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로 기록된다. 심지어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단 지파가 사라지고 요셉이 다시 등장하며,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성경은 족보와 명단조차 단순한 인명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드러내는 신학적 메시지로 사용한다. 따라서 열두 지파의 명단도 기록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명단은 헬통의 대표 명단이다.

창세기에는 야곱(이스라엘)의 열두 아들이 기록된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잇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것이 모든 지파의 출발점이며, 가장 원형적인 명단이다. 이 명단은 헬통과 출생을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후 등장하는 모든 지파 명단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창세기 48장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한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창 48:5b)

이 한 절로 인해 요셉은 두 몫의 기업을 받게 된다. 이후 성경에서는 필요에 따라 요셉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각각 독립된 지파로 기록하기도 한다. 바로 이것이 명단이 달라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다.

두 번째는 기업의 대표 명단이다.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토지 기업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업이라.”(민 18:20b)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레위가 빠진 자리를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대신 채우면서 여전히 열두 지파가 유지된다. 따라서 기업 분배에서는 요셉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등장한다.

세 번째는 회복의 대표 명단이다. 에스겔 48장은 포로 이후 회복될 새 이스라엘을 보여 준다. 그런데 매우 흥미롭게도 땅 분배에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기업을 받는 반면, 성문의 열두 문에는 두 이름 대신 요셉이 등장한다. 또한 레위도 성문의 이름 가운데 포함된다.

즉, 땅 분배는 기업의 원리를 따르지만, 성문의 이름은 언약 공동체의 완전성을 상징하는 원리를 따른다. 에스겔은 일부러 두 명단을 다르게 기록한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업보다 공동체의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마지막은 종말론적 대표 명단이다. 요한계시록 7장의 십사만 사천 명의 명단은 더욱 특별하다. 여기서는 레위가 포함되고, 요셉과 므낫세가 함께 기록되며, 단 지파는 제외된다. 또한 에브라임이라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성경은 이유를 직접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많은 학자들은 단과 에브라임이 우상숭배의 중심이 되었던 역사(삿 18장, 왕상 12장, 호 4장 등)를 배경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것 역시 단정할 수 있는 해석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헬통의 완전성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의 완전성을 상징하려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새 예루살렘의 열두 문에는 도대체 어느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까? 요한계시록 21장 12절은 이렇게 말한다.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놀랍게도 성경은 그 이름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는다.

에스겔 48장처럼 어느 문에 어느 지

파가 새겨졌는지도 말하지 않는다. 단지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라고만 기록한다. 이 침묵은 오히려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의 공식 명단을 영원한 기준으로 삼으셨다면, 계시록 21장은 그 명단을 분명히 기록했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름을 생략하셨다. 이는 새 예루살렘의 열두 문이 특정 시대의 명단을 확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언약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임을 보여 준다.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어느 명단이 맞는가?”를 묻기보다 “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을 종합하면 네 가지 대표 명단이 존재한다.

첫째, 헬통의 대표는 창세기의 열두 아들이다.

둘째, 기업의 대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포함한 가나안 땅 분배 명단이다.

셋째, 회복의 대표는 에스겔 48장의 성문 명단이다.

넷째, 종말론적 대표는 요한계시록 7장의 인 맞은 열두 지파이다.

이 네 명단은 서로 경쟁하거나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각각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서로 다른 진리를 드러내는 거룩한 창이다.

성경은 언제나 숫자보다 의미를 강조한다. 열두 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충만함과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이며, 명단의 배열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식적인 열두 지파 명단”을 찾기보다, 변화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아야 한다. 헬통의 시대에도, 기업의 시대에도, 회복의 시대에도, 종말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한 백성을 부르시고 끝까지 지키신다.

새 예루살렘의 열두 문은 바로 그 영원한 언약의 증거이다. 문에 새겨진 이름이 무엇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이 하나님의 모든 언약 백성에게 영원히 열려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성의 마지막 이름은 에스겔과 요한이 함께 증언하듯, “여호와삼마(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겔 48:35b),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계 21:3b)**는 영광스러운 약속으로 완성된다.

Your True ESG Partner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증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호남 최초 ‘은송리교회’ 터 어디인가… 사료·지도·사진으로 고증

김경미·이재근·김중기, 완산 선교지부 범위와 첫 교회 위치 집중 조명
선교지부 입지에는 대체로 공감…첫 교회 위치와 옛 사진 진위 놓고 이견

호남 최초의 개신교회로 알려진 은송리교회의 역사적 위치와 전주 초기 선교 공간을 규명하기 위한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주시기독교연합회와 예수병원 구바울기념의학박물관이 공동 주관한 ‘호남 최초의 은송리 교회 터 고증 학술세미나’가 지난 7월 27일 전주시기독교근대역사기념관 4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세미나는 ‘호남기독교의 여명, 은송리를 기억하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경미 전주대학교 연구교수, 이재근 광산대학교 교수, 김중기 오래된미래연구소 이사가 발제했으며, 홍성덕 전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손상국 전 JTV 국장, 송상훈 전주신흥고등학교 교사, 한규무 광주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은송리교회는 1893년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들을 도운 한국인 조사 정해원이 전주성 밖 완산 은송리에 초가집을 마련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 은 전주와 호남 지역의 초기 복음 전파 거점이자 미국 남장로회 전주선교지부의 첫 터전으로 활용됐으며, 현재 전주서문교회의 기원이 됐다.

그러나 선교지부가 완산에서 화산으로 이전하고 도시 지형이 크게 바뀌면서 첫 교회의 정확한 위치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으로 남았다. 지금까지 행운슈퍼 옆 공터와 좋은교회 옆 공터, 명륜맨션 일대 등 세 곳이 주요 후보지로 제시됐다. 초기 교회 사진으로 알려진 자료의 진위와 당시 ‘교회’와 ‘예배당’이 같은 건물이었는지를 두고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경미 전 연구교수는 ‘은송리교회 위치 탐색과 관광자원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전 교수는 대한제국 시기 제작된 화화식 지도인 ‘완산도형’을 중심으로 선교사들의 보고

서와 편지, 일기, 사진 등을 교차 분석해 완산 전주선교지부의 공간을 재구성했다.

완산도형에는 선교사들의 점유 공간을 뜻하는 ‘미국인점유처’와 함께 가와집 3채, 초가집 5채가 표시돼 있다. 김 전 교수는 이러한 건물 배치가 당시 선교사들이 남긴 기록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선교사들은 1893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완산의 주택과 부지를 확보했으며, 언덕 위에는 선교사 주택을, 아래쪽에는 교회와 진료소, 거주용 초가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는 정해원이 1893년 마련한 초가집이 1896년 이후 예배 장소로 사용됐고, 1897년 7월 첫 세례자들이 나오면서 정식 교회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1898년 11월 3일에는 마티 잉골드 선교사가 우물 인근 초가집을 개조해 첫 진료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교수는 “완산도형에 구현된 전주스테이션은 실제 선교사들이 거주하던 당시의 공간 현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며 완산도형과 선교사 기록을 종합하면 명륜맨션과 그 주변 언덕을 초기 전주선교지부가 있던 곳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구 성과를 관광자원으로 연결하기 위해 관련 용어와 공간 범위를 정리하고 안내판과 전시관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잉골드의 진료실을 사진 자료에 따라 복원하고, 완산 청학산 일대에 초기 개신교 선교 역사를 보여주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전 교수는 “미션스테이션의 역할과 의미를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역사로 재구성하는 일은 중요하다”며 “선교역사 스토리와 남아 있는 유형유산을 연결해 지역개발 콘텐츠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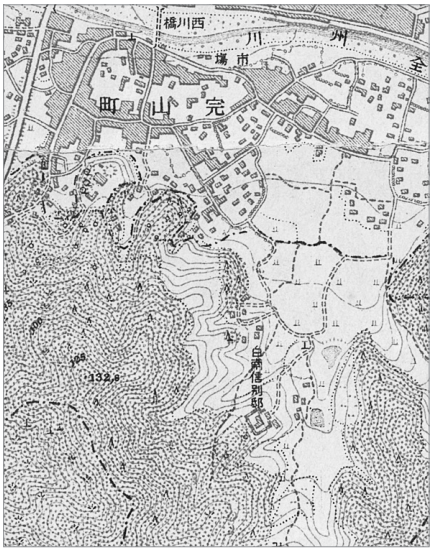
토론에 나선 손상국 전 JTV 국장은 선교사들이 당시 국유지였던 완산의 광범위한 부지를 실제로 매입했는지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가와 선교사 주택, 병원 예정지와 산림까지 포함한 공간을 적은 비용으로 구입했다는 기록만으로는 소유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손 전 국장은 은송리교회의 정확한 위치와 건축 형태에 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념관과 진료소를 새로 복원하는 방안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주시기독교근대역사기념관과 예수병원 구바울기념의학박물관의 전시를 먼저 보완해 초기 선교와 의료선교의 흐름을 보여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재근 교수는 ‘호남기독교의 기원 은송리교회 및 남장로회 전주선교지부 공간 연구’를 주제로 은송리교회를 둘러싼 연구와 논쟁의 흐름을 정리했다. 이 교수는 첫 교회 위치와 관련해 행운슈퍼 옆 공터설은 초기 교인들의 구술 증언, 좋은교회 옆 공터설은 구한말 도로망과 생활권에 대한 추정, 명륜맨션 일대설은 완산도형과 선교사 문헌을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 견해 가운데 김경미 전 교수의 명륜맨션 일대설이 역사지리문헌적으로 가장 높은 타당성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완산 전주선교지부의 위치와 그 안에 있던 첫 초가교회의 위치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남장로회 선교사들의 첫 정착지였던 완산 전주선교지부의 전체 공간은 오늘날 명륜맨션이 위치한 언덕과 그 주변 부지라는 데 연구자들이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해원이 구입한 첫 초가, 즉 은송리교회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확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위치비정 지역 확대 ©주최 측 제공

완산도형에 표시된 언덕 최상단 초가를 첫 교회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선교사 기록에는 첫 집이 도시 방향으로 언덕 아래쪽에 있었다는 내용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첫 교회가 선교지부 내에서 조금 더 낮은 곳에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초기 은송리교회 사진을 둘러싼 논쟁도 소개했다. 오랫동안 첫 교회 사진으로 활용된 노년의 루이스 테이트 선교사가 초가 앞에 서 있는 사진은 촬영 시기와 사진 설명 등을 고려할 때 1905년 이전 은송리교회의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매티 테이트와 마티 잉골드, 한국인 여성 신자들이 초가 앞에서 찍은 사진을 현재까지 확인된 가장 분명한 은송리교회 사진으로 평가했다.

그는 최근 연구에서 ‘교회’와 ‘예배당’이 별도 건물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점에도 주목했다. 선교사 기록과 왕실 의궤에 ‘교회’와 ‘예배당’이 각각 등장하는 만큼 두 건물이 공존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각각의 용도와 위치를 확정하려면 추가 사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 송상훈 교사는 선교사 기록에 등장하는 ‘언덕’과 ‘언덕 언저리’, ‘편자 모양의 땅’, ‘교회’와 ‘예배당’ 등의 의미를 더

욱 정밀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교사는 1917년 제작된 전주지도의 등고선을 바탕으로 병원 부지로 예정됐던 편자 모양의 땅이 현재 관음선원과 태고사 주변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왕실 의궤에 기록된 8칸 예배당이 정해원을 통해 마련한 최초의 은송리교회일 수 있으며, 선교사 보고서에 등장하는 미완성 예배당과 진료소는 완산이 아닌 전주 시내에서 해리스 선교사가 마련하던 공간일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중기 이사는 ‘미국 남장로회 전주선교지부의 완산 영역과 호남 첫 은송리교회’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이사는 초기 기록과 왕실 자료, 토지대장과 항공사진, 초기 교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완산 선교지부의 범위가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것보다 넓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주선교지부가 명륜맨션 주변의 하은송리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교사 주택이 자리했던 옛 백운정 인근 상은송리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의궤에 기록된 선교사들의 토지 규모가 최소 1700평에 이르고, 레이놀즈와 테이트의 주택 위치도 현재 거성연립과 관음선원 일대의 지형과 부합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은송리에 예배용 건물이 하나 아니라 두 개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해원이 처음 구입한 초가집은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안내한 첫 ‘교회’였으며, 교인이 늘면서 별도의 8칸 ‘예배당’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이 예배당은 이후 증축돼 10칸, 약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됐다고 했다.

그는 “정해원이 구입한 첫 교회의 위치는 관련 기록과 증언을 검토할 때 전주서문교회와 기억해 온 행운슈퍼 옆 공터로 봐야 한다”며 “두 번째 교회인 예배당은 현재 거성연립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테이트 선교사가 초가 앞에 서 있는 사진에 대해서도 매계교회가 아닌 은송리의 두 번째 예배당이라고 주장했다. 매계

교회의 옛 예배당은 ‘ㄱ’자형이었던 반면 사진 속 건물은 일자형 10칸 건물이며, 매계교회 원로 교인들도 해당 건물이 자신들의 교회가 아니라고 증언했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사진 속 초가는 규모와 외관이 의궤와 완산도형, 관련 기록에 나타난 예배당과 일치한다”며 “1898년경 교인들이 별도로 마련하고 1903년 최종 10칸으로 확장된 두 번째 교회 건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한규무 교수는 김 이사의 발표에 대해 은송리교회의 위치를 밝히는 문제는 해석이나 평가보다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 작업인 만큼 객관적인 자료와 연구자들 사이의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이번 연구는 전주 교회의 출생지이자 전주 선교의 출발지가 어디인지를 밝히는 작업”이라며 “전주와 전북기독교의 ‘창세기에 해당하며, 기독교 문화유산의 보존과 세계문화유산 등재 움직임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기존 연구를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장과 근거별로 종합·분류해 독자들이 논쟁의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완산 전주선교지부가 명륜맨션과 그 주변 언덕을 중심으로 조성됐다는 점에 대체적인 공감대가 확인됐다. 다만 선교지부의 범위가 상은송리까지 이어졌는 지, 정해원이 구입한 첫 초가교회가 언덕 위와 아래 중 어디에 있는지, ‘교회’와 ‘예배당’이 별도 건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렸다.

은송리교회의 정확한 위치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선교사 문헌과 왕실 자료, 고지도와 토지대장, 사진과 구술 증언을 추가로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역사학과 기독교사, 지리학, 건축사, 고고학, 관광학을 아우르는 융합 연구와 충분한 학술적 검증을 거쳐 역사적 흔적의 보존·복원과 문화유산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장지동 기자

이스라엘관광청, 텔아비브 일상·도시의 진정성 담은 글로벌 홍보영상 공개

화려한 관광지 대신 해변·도심·바·공사 현장 등 실제 도시 풍경 담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중해 연안 도시 텔아비브가 도시의 일상적인 모습과 고유한 매력을 담아낸 새로운 글로벌 홍보영상을 공개했다.

이스라엘관광청에 따르면 이번 홍보영상은 기존 관광 홍보에서 주로 활용해 온 화려한 관광 명소 중심의 연출에서 벗어나 텔아비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

주는 ‘안티 투어리즘(Anti-tourism)’ 콘셉트를 전면에 내세웠다.

영상에는 텔아비브의 대표적인 지중해 해변과 도심 풍경뿐 아니라 첨단 기술 산업과 오래된 건축물이 공존하는 도시의 모습이 담겼다. 세계적인 문화시설과 동

네 바, 공사 현장과 교통 체증 등 관광 홍보영상에서는 쉽게 다뤄지지 않았던 일상적인 풍경도 함께 등장한다.

이번 글로벌 브랜드 캠페인은 완벽하게 연출된 관광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존 방식과 달리 도시가 가진 현실과 일상

을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텔아비브의 다양한 일상이 공존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도시의 자유로운 문화와 창의적인 에너지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장지동 기자



텔아비브 화이트시티 바우하우스 건물. © 이스라엘관광청/by Dana Friedlander

행복한 동행 전국 지역 지부 및 센터 모집

교회와 선교를 잇는 ‘행복한 동행’이 전국 지역 파트너를 찾습니다

주요 유료 서비스

부모님 안부/건강, 맞벌이 육아 동행
어르신 정서 지원/치매 예방
반려동물 산책&장례
법률/병원 입·퇴원 동행
생활 동행 등 맞춤형 서비스

모집 대상

동행매니저, 노인돌봄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자격자 및 사명감 있는
교회/단체 환영!



앱(App) 기반
전국 매칭
시스템 구축

2025년 11월,
구글/애플 앱스토어
전격 출시!

앱스토어 검색
"동행365"

동행매니저와 노인돌봄생활지원사,
기타 민간자격증 자체 교육 후 발급 가능합니다

전국 지부, 센터 문의

1544-1322

010-7546-7933

www.gacci.net

행복한
동행

목회상담치유

왜 그런가?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되는가?
나는 왜 목회의 적응이 안 되는가?
나는 왜 목회지를 자주 이동 하는가?
나는 목회를 실패한 것일 가?

◆ 답답하고 허전하고
심란할 때 상담해주세요!

이 종 운 목사
010-3809-6487

충북 단양군 대강면 두음6길4

천혜의 자연환경, 영동 풍성기도원 매매

-위치: 충북 영동군 영동읍 479-8 외 1건
(영동역 5~10분 거리)
-규모: 토지: 834평 / 건물: 139.75(평)+@ (철근 콘크리트 구조)
-수용인원: 100명 이상 수용 가능.

[시설 현황]
1. 제1·2성전, 방 10개(에어컨 완비), 기도실 5개,
화장실 7개, 주방 3개, 넓은 주차장, 아름다운 조경,
2. 바로 앞 시냇물(수영 및 낚시 가능)

[특별 혜택]
1. 운영비 제로: 태양광(9kw) 및, 지하수 사용으로
전기·수도료 무상 수준.
2. 성물 무상 양도: 강대상, 음향, 피아노,
의자 등 몸만 오면 즉시 운영 가능
매매가: 9억원 (답사 후 협의 가능 / 용도변경 가능)

경북 영주의 수정교회 및 주택부지

-위치: 영주시 가흥동 637-7
-대지: 76평 -매매가: 1억 5천만원

매/매/문/의
010-9679-8275, 010-9883-8275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60:1)



다문화복음방송
(Multicultural Gospel Broadcasting Company)



대표 김 덕 겸 목사

다문화복음방송을 시청하시려면
1. 홈페이지(www.mgbc.tv)에 접속
2. 메인 화면의 국가나 국가를 선택
3.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듣기

**이미 방송된 내용이나 현재 방송 중인 방송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
플레이스토어에서 다문화복음방송 앱 다운로드 하시면 13개국어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1 동아상가 402호
대표번호: 010-8228-5213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교회담보대출: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 교회: 연 3.99%~5.49%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 교회 예배 관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요셉 목사

문의전화: 010-9166-5600, 010-8652-5600

TEL: 031-439-5555 FAX: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moon4903012@hanmail.net

[사]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1995년 개척하여 2번의 건축을하고
30년 동안 부흥·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부흥회

부흥회 지원

강사 약력

- 20년동안 1000회 이상 부흥집회 인도
- 한샘교회 담임목사
-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사) 現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56대 대표회장
- 現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 Good TV 부흥선교협의회 대표회장

한샘 교회

- 1995.9 개척
- 2000.4 1차 성전건축
- 2008.1 2차 성전건축

방향 및 성령의 역사

- 철저히 개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 개교회의 목회방침에 따라
-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짐
- 학생, 청년이 꿈을 꾸고, 길이 열리며 부흥·성장함
- 영·육·물질의 문제가 해결,
- 기둥이 세워지고 축복의 증거가 나타남
- 사탄의 역사가 끊어짐

신청 방법

이승현 목사:
010-8913-7777
·한샘교회: 032-512-3375

지원 대상

-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 낙도·오지교회
- 3 無 부흥회:
- 사례, 숙소, 식사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안양 비산동 교회 소속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 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께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 소 경기 화성시 봉담읍 분천길 185

예배시간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인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세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 교육

- 외국어 성경 생생한 원어 발음
- 해외 기독교 서적도 쉽게 번역
- 스캔, 음성, 사진 3가지 방식으로 통 번역
- 영어, 국어, 한자 전자사전 기능으로 문해력 도움

신학생들과 해외 사역자들에게도 유용

- WiFi 없이 9개 언어 오지에서도 완벽 작동
- 선교지에서도 언어 장벽 해결
- 통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안정적 사용
- 60개 언어로 어디든 담대하게 복음 전파

독자 특별 혜택
정상가 398,000 → 할인가 259,000원
문의 010-9965-0961

빠른구매

AI보카펜만의 독보적인 5가지 차별점

1. 4가지 사전으로 영어, 국어+문해력
콜린스 영영사전, YBM영한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에센스한자사전
2. 인터넷없이도 9가지 언어 번역
3. 60개 언어 지원 - 진정한 글로벌 기기
4. SD카드 확장 - 무한 성장 가능
5. 36,000자 토폴, 토익 등 대용량 단어장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추천사

장로님께서 철수를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 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장로(구세군 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춘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티지듯 피어난 꽃 한 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 (창원내산교회)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탈무드의 지혜 천 데나리온을 주고 산 개구리

어느 고을에 신장이 매우 두터운 사람이 있었다. 그는 대단한 부자였으나 나이가 들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다. 그는 죽음을 예감하자 아들 내외를 불렀다.

“내가 죽거든 내 재산은 모두 네가 물려받도록 해라. 그리고 주님의 율법을 지켜 도리에 어긋나는 짓은 하지 않도록 해라.”

아들 조던과 그의 아내는 아버지의 유언을 명심해 들었다.

“그리고 한 마디만 더 하마. 내가 죽고 상이 끝나면 시장으로 나가서 노점 상인이 모여들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다가 내가 맨 처음 만나는 상인에게서 물건을 사라. 꼭 사야 한다. 그리고 그 산 물건을 소중히 간직하도록 해라.”

유언을 마친 후, 노인은 세상을 떠났다. 아들 내외는 관례에 따라 삼십 일간을 곡을 하였다. 상을 마친 후,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조던은 시장에 나갔다. 얼마 동안은 기다리자 아름답게 조각된 작은 상자를 든 남자가 나타났다.

“그 상자는 팔 것입니까?”

“팔려고 가져왔지요.”

“내가 사겠습니다. 얼마를 드릴까요?”

“금화 1백 데나리온만 내십시오.”

“그 작은 상자에 1백 데나리온이라니 너무 비싸요. 60데나리온만 합시다.”

조던이 물건값을 깎자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않고 돌아서 가려 했다. 조던은 마음이 급해졌다.

저 물건을 사지 못한다면 아버지의 유언을 저버리는 것이 되지 않는가! 조던은 상인을 쫓아가서 붙잡았다.

“내가 1백 데나리온 내겠으니 내게 파시오.”

그러나 남자의 대답은 엉뚱했다.

“2백 데나리온 내시오. 그 이하라면 아예 팔을 마시오.”

상인은 또 돌아서 가려고 했다. 조던은 아버지의 유언을 저버리게 될까 봐 전전긍긍했다. 아무리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버지의 유언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조던은 다시 한번 노인을 붙잡았다.

“종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드리지요.”

“금화 천 데나리온 내시켰소? 그 금액에서 한 푼이라도 깎으려면 아마 헛수고가 될 것이요.”

조던은 망설이는 바람에 백 데나리온의 열 배가 되는 값을 치르고 그 상자를 사게 되었다. 상자를 받아가지고 온 조던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뚜껑을 열어 보려고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열리지 않았다.

얼마 후, 아버님의 제사 날이 돌아오고 아내와 함께 식탁에 앉았을 때 조던이 아내에게 말했다.

“그 상자를 가져오시오. 오늘 돌아가신 아버님을 생각하는 뜻으로 이 식탁 위에 놓아 봅시다.”

아내는 남편의 말에 따라 그 상자를 가져다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조던이 시험 삼아 손을 대보니 이번엔 상자가 힘없이 열리는 것이었다. 신기

함을 느낀 조던은 얼른 뚜껑을 열어 안을 들여다 보았다. 그 안에는 작은 상자가 또 하나 있었다. 조던은 그 작은 상자도 열었다. 그러자 그 안에는 뜻밖에도 개구리 한 마리가 들어 있었다.

부부는 깜짝 놀랐으나 이윽고 정신을 차리고 개구리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러자 개구리는 맛있게 받아먹고 나더니 조던의 얼굴로 팔짝 뛰어들어 입을 맞추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다시 작은 상자 속으로 들어갔다. 조던은 상자를 다시 닫았다. 그리고는 때맞춰 먹이를 주며 정성껏 키웠다.

“천천히 특별히 유언을 하신 것을 보면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요. 우리 이 개구리를 잘 키워 봅시다.”

두 사람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덕분인지 개구리는 무럭무럭 자라 얼마가 지나지 않아 그 상자가 비좁을 지경이 되었다. 개구리가 자람에 따라 점점 더 큰 상자로 옮겨주기를 몇 번, 얼마 후에는 아예 방을 만들어 주어야 할 정도가 되었다. 개구리가 지칠 줄 모르고 자람에 따라 그에 비례하여 개구리 사육에 드는 비용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조던이 부자이긴 했지만 수년 동안 개구리를 사육하다 보니 가계가 견뎌내질 못하게 되었다. 조던 내외의 살림은 하루하루 쪼들려 갔다. 그리고 개구리의 몸은 엄청나게 커져서 실내에 들어놓지 못하고 아예 뜰에서 키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

“여보, 어떻게 하면 좋겠소? 더 이상 먹이를 살 돈이 없으니... 개구리는 저렇게 지칠 줄 모르고 자라니 이제는 우리까지 굶어 죽게 생겼구료.”

생각이 깊은 아내는 조던을 위로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오늘은 당신의 외투를 팔면 되고 내일은 저의 목도리라도 팔면 되지 않겠어요?”

부부는 굶주리면서도 개구리 사육에는 정성을 쏟았다. 드디어 팔아야 할 것이 더 이상 없게 되었을 때, 조던은 주님께 기도를 올렸다.

“주님, 저는 아버지의 유언을 충실히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바쳤습니다. 이제 저희들께겐 더 이상의 물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저희가 정성을 다하는 저 개구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의 기도가 끝나자 멀뚱히 앉아 있던 개구리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당신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소.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당신이 말을 나눌 수 있는 힘을 주셨소. 그동안 나를 정성껏 돌봐주어서 정말 고맙소. 이번에는 내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 차례인 것 같군요. 자,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해보시오.”

놀라고 감격한 조던은 들떠서 말했다.

“이 세상에 있는 언어란 언어는 내가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오.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요.”

개구리는 당장 그 소원을 이루어 주었다. 조던

은 인간의 말뿐만 아니라 새나 짐승들의 말까지도 이해하게 되었다. 개구리는 조던의 아내에게도 소원을 말하라고 했다.

“그동안 우리 부부는 쪼들리며 어렵게 살아왔어요. 우리 부부가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재산이 있었으면 해요.”

“그렇다면 금과 은을 비롯한 보석을 몇 수레 드리지요.”

그렇게 말하고 개구리는 깊은 숲속으로 부부를 데리고 갔다. 그들 부부가 숲에 이르자, 뱀, 두꺼비, 곤충 등의 온갖 짐승이 각각 금과 은, 그리고 보석들을 입에 물고 그들 부부에게로 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마치 공물을 바치듯이 보석을 그들 부부의 발 앞에 쌓아 놓았다. 조던 부부는 개구리가 시키는 대로 그 보물들을 수레와 보자기에 담고 또 담았다.

작업이 다 끝난 뒤, 조던은 개구리에게 물었다.

“꼭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소.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어디에서 오셨는지요?”

“나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이 이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금수나 새와 교섭을 하곤 했지요. 아담이 나의 어머니와 교섭을 하여 낳은 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천 년을 주기로 몸의 크기가 변합니다. 천 년 동안은 몸이 계속 커지고, 그 다음 천 년 동안은 몸이 계속 작아집니다. 내가 이렇게 크게 된 것도 그 성질 때문이지요.”

사람은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공

바이블지식IN

내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랑은 아주 강력한 감정입니다. 또한 사랑은 우리 삶에 상당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감정에 근거하여 많은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고, 사랑에 빠졌다고 느끼기 때문에 결혼까지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결혼의 약 반 이상이 이혼으로 마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진정한 사랑이 왔다가 사라질 수 있는 감정인 아니라 결단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차 사랑해야 합니다(“성구”(눅 6:35), “성구”(고전 13:4-7)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는 것은 매우 쉬울 수 있지만,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진정한 사랑 인지를 결정하기 전에 물어보아야 할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이 사람이 그리스도께 자

신의 삶을 맡긴 그리스도인인가? 그 사람이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가? 또한 당신이 당신의 마음과 감정을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 다음으로 당신과의 관계를 형성할 것인지를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결혼하면, 그 두 사람은 한 몸이 된다고 말합니다(“성구”(창 2:24), “성구”(마 19:5)).

또 다른 고려 사항은 사랑하는 사람이 배우자가 되기에 좋은 후보인지의 여부입니다. 그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서로의 관계를 평생 지속할 결혼 생활을 구축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정열을 쏟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언제 누구와 진정으로 사랑에 빠지는지를 알 수 있는 잣대는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를 구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단지 하나의 감정이 아닌 결단입니다. 진정한 성경적인 사랑은 당신이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졌다고” 느끼는 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항상 사랑하는 것입니다.

갯케스천스 제공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Galatians 6:9 NIV
Let us not become weary in doing good, for at the proper time we will reap a harvest if we do not give up.

- Let us(Let's) not + 동사원형: ~하지 맙시다
- weary: 지친, 매우 피곤한
- in doing good: 선한 일을 하는 동안
- at the proper time: 적당한 때에
- reap: 거두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카카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행복한농어촌, 함께하는 KRC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RC 한국농어촌공사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의

영혼의 양식(64)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본문

이사야 5장 1-7절

서론

씨앗을 뿌린 후 농부가 기다리는 것
오늘 본문인 이사야 5장 1-7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떤 열매를 기대하셨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 주는

본론

1.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어 심히 기쁜 진에로다.” (사 5:1) 본문에서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며,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어디에 심으셨습니까? 본문은 ‘심히 기쁜 진 산’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마련하신 최상의 은혜와 언약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2절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위해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하셨는지를 다섯 가지 동사로 보여 줍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짚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사 5:2) 첫째, “땅을 파서” 굳은 땅을 갈아엎어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기경하

시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둘째, “돌을 제하고.” 가나안 땅에는 돌이 많았습니다. 농부는 뿌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돌을 하나씩 골라냈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과 욕심, 상처와 죄의 습관이라는 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제거하시며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셋째,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의 말씀을 심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씨앗이 아니라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입니다.

넷째, “망대를 세웠고.” 망대는 포도원을 보호하는 파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다섯째, “술틀을 짚도다.” 아직 열매도 맺히지 않았는데 술틀부터 만들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셨음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예상하고 포도원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확신하며 모든 준비를 마쳐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좋은 포도를 맺기



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는 무엇이었으며, 왜 하나님은 그 열매를 ‘들포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 들포도의 비극 :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와 이스라엘이 맺은 열매

‘들 포 도’는 히브리어 ‘베우 심(Be’ushim)’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맛이 떨어지는 포도가 아니라, 부패하여 먹을 수 없고 악취를 풍기는 야생 포도를 의미합니다. 이 장면을 농부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해 동안 밭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워 밤낮으로 지켰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술틀까지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확의 계절이 되어 손에 쥘 것은 향기로운 포도가 아니라 버려야 할 들포도였습니다.

그 순간 농부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단순한 실망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쏟아부은 수고와 허사가 된 슬픔이며, 기대가 무너진 탄식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백성을 범정에 부르십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이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사 5:3) 여기서 ‘사리를 판단하라’는 말은 범정에서 옳고 그름을 판결하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4절은 하나님의 변론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사 5:4) 이 말씀은 책망 이전에 하나님의 절절한 호소입니다. 결국 문제는 포도원이었고, 문제는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물으십니다. “내가 좋은 포도를 기대했는데,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었느냐?”

3. 하나님이 찾는 열매 : 정의와 공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7절에 나옵니다. 7절은 이사야 5장 전체를 마무리

하는 결론이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는 핵심 말씀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와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하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사 5:7)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좋은 포도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정의(미쉬파트, Mishpat)였습니다. 정의는 사람과 사회를 공정하게 세우는 바른 질서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거짓과 불의를 바로 잡으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둘째는 공의(즈다카, Tzedakah)였습니다. 공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며,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거룩한 인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 대신 전혀 다른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사야는 이를 놀라운 히브리어 언어유희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미쉬파트(정의)’를 기대하셨는데, 돌아온 것은 ‘미스파흐(포학)’였습니다. 하나님은 ‘즈다카(공의)’를 바라셨는데, 들려온 것은 ‘짜카카(부르짖음)’였습니다. 말은 매우 비슷하지만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외형보다 삶의 열매를 보십니다. 주일의 예배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입니다. 가정에서는 사랑과 용서의 열매를, 직장에서는 정직과 책임의 열매를, 사업에서는 신실함의 열매를, 이웃에게는 긍휼과 배려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4.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의 운명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심판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점차 거두시는 과정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울타리를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자 포도원은 외부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다음으로 담을 허무십니다. 더 이상 대적을 막을 수 없게 되고, 포도원은 짓밟히기 시작합니다. 아예 하나님은 농부의 손길을 거두십니다. 가지를 다듬지 않고 잡초도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그 결과 가시와 캨레가 무성하게 자라 포도원은 황폐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비마저 내리지 않게 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끊어지자 포도원은 완전히 메마르게 됩니다.

성경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눈물로 회개했을 때 주님은 그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무너졌던 울타리가 다시 세워지고, 메마른 심령에는 은혜의 단비가 내리며, 잃어버린 열매가 다시 맺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5. 어떻게 좋은 포도를 맺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포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포도

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 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1, 5)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노력이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참포도나무를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을 때만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날마다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교만과 욕심, 미움과 상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둘째,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씨앗이 좋은 땅에 뿌리를 내려야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은 삶으로 이어질 때 열매가 됩니다. 셋째, 삶의 현장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사랑으로, 직장에서는 정직으로, 사업에서는 신실함으로, 이웃에게는 긍휼과 배려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결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가꾸시고, 여전히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며, 여전히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십시오.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고, 사랑과 거룩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십시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그래, 내가 기다리던 열매가 바로 이것이야!”라고 기쁨으로 말씀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무리 기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사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기경하여 주시고, 참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때, 기뻐 받으시는 좋은 열매를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원호 목사 (서울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Rafa Sulfur Spot Pine Shampoo Bar

소나무 숲에서 즐기는 유황 온천욕



9가지
에센셜 오일



All In
One
올인원
멀티 케어



유황 온천의
40,240배 농도



10가지
자연 유래 추출물



고객상담센터
쇼핑몰 주소

043-900-0367 / 043-900-0377
www.rafarophe.com

검색창에 “라파로페”를 검색해보세요.



QR코드 찍고
구매하러 가기

“목회 어려워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할 수 있다”

[기독일보 통권 1000호 연중특집] 양춘길 목사의 삶과 목회(2)

[지난 호에 이어]
◆금성장의 그림자와 84.6% 수평이동의 충격

그러나 성장에는 또 다른 그림자도 있었다. 양 목사는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평신도 리더들을 충분히 훈련시키지 못한 채 사역을 맡리게 된 점을 안타까운 경험으로 꼽았다. 더 큰 문제는 새로 온 성도들의 다수가 다른 교회에서 이동해 온 경우였다는 사실이었다. 실제로 한 시기에 새가족들을 분석해 보니 84.6%가 수평이동이었다. 양 목사는 “교회는 성장하지만 이웃 교회는 교인을 잃는다면, 이것이 과연 교회의 본래 목적에 맞는 성장인가 하는 회의가 들었다”라며 “교회가 은혜를 주고받는 차원을 넘어 정말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고 있는가를 놓고 깊이 고민하게 됐다”라고 했다.

이 문제는 사실 첫 담임목회자에서도 경험했던 것이었고, 필그림교회에서는 평신도 사역을 강조하며 그것을 극복해 보려 했지만 여전히 반복됐다고 했다. 그는 처음에는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이 오래된 갈등은 결국 분립, 지교회, 교구의 교회화 같은 여러 돌파구를 고민하게 만들었고, 나중에는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배경이 됐다.

◆교단 탈퇴와 선교적 교회 전환
결정적인 전환은 교단 탈퇴와 건물 포

기 이후 찾아왔다. 양 목사는 그 과정을 지나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온 성도들과 함께 깊이 공유하게 됐다고 했다. 그리고 2018년 초, 전통적인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변화되도록 돕는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오래 고민해 온 문제의 실제적 돌파구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그 전부터 선교적 교회에 대한 관심과 갈등을 안고 있었지만, 교단 탈퇴와 건물 포기라는 광야의 시간을 지나며 그것이 실제 방향으로 굳어졌다고 했다.

현재의 ‘필그림선교교회’라는 이름은 교단을 떠난 뒤 기존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급히 정해졌다. 은행 계좌 개설을 위해서도 새 이름이 필요해 ‘필그림’에 ‘선교’를 더했지만, 양 목사는 지나고 보니 이 역시 하나님이 교회를 선교적 방향으로 이끄신 과정이었다고 회고했다.

양 목사는 선교적 교회를 “일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설명했다. 교회의 목적은 개교회 성장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데 있고, 성도들 역시 누군가를 선교지로 보내는 사람들에 앞서 이미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선교적 교회는 무엇인지 충분히 교육하는 것부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프로그램 하나를 더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의 DNA와 문화를 바꾸는 일이라고 했다.

그런 이해는 교회 구조와 문화의 변화로 이어졌다. 예배 속에는 매주 선교를 나



필그림선교교회 담임 양춘길 목사 ©교회 측 제공

누고 기도하는 순서가 들어갔고, 예배 마지막에는 모인 교회가 이제 흩어진 교회로 세상 속에 나아간다는 파송의식이 강조됐다. 부흥회 대신 선교 컨퍼런스가 자리잡기 시작했고, 선교적 삶 워크숍을 통해 성도들이 각자의 소명을 발견하도록 도왔다. 어떤 이는 싱글맘 사역으로, 어떤 이는 노숙자 사역으로, 또 어떤 이는 병원 사역이나 음악 사역으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향을 깨닫게 됐다고 한다. 양 목사는 “개인의 선교적 삶이 계속 늘어나면 그것이 곧 선교적 마니스트리로 발전하고, 다시 선교적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라고 설명했다.

양 목사는 선교적 교회를 강조한다고 해서 해외 선교가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일상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성도들이 해외 선교에도 더 큰 관심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한인 교회는 선교를 말할 때 해외 선교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지만, 선교적 교회로 전환되면서 “지금 여기”가 우리의 사명자임을

깨닫게 하고, 동시에 해외 선교와의 균형을 맞춰 가는 것이 건강한 방향이라고 했다.

팬데믹 역시 필그림선교교회에는 오히려 성도들의 선교적 삶을 가속하는 계기가 됐다. 사랑의 마스크 운동, 소망의 텃밭, 병원 종사자들에게 보내는 카드, 홀리 스들을 위한 샌드위치 나눔, 지역 식당과 병원을 연결한 음식 지원 등이 그 시기 자발적으로 일어났다. 양 목사는 “어려움은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있었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 것인가를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됐다”라며 “그때 선교적 삶이 더 구체화됐다”라고 했다.

팬데믹은 건물 구입에도 역설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섣다른 직전 새 건물 구입을 결정했지만 다운페이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이지 못하는 몇 달 동안 기존 렌트비가 나가지 않으면서 그 비용이 오히려 보탬이 됐다는 것이다. 그는 그 시기에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라는 원칙을 더 분명히 했다고 했다. 그래서 더 큰 건물을 추구하기보다, 선교의 센터로 쓸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선택했고, 실제로 건물 외벽에도 ‘필그림선교센터’라는 이름을 더 크게 내걸어 이곳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센터라는 정체성을 드러냈다고 했다.

◆이민교회의 미래와 다음 세대

양 목사는 앞으로의 이민교회에 대해서도 분명한 전망을 내놓았다. 한인 1세 중심의 이민교회는 이미 쇠퇴기에 들어섰고, 앞으로는 다민족을 품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민자 유입은 줄고, 2세와 3세는 영어권 공동체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되지는 않더라도 그 방향을 정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필그림교회 역시 영어목회가 독립해 나간 경험이 있고, 이후 다시 시작한 영어목회는 자연스럽게 다민족 공동체로 형성돼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도 그는 단순히 붙잡아 두는 대상으로 보지 말고, 선교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만큼 먼저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나게 하고, 이후에는 자신들에게 맞는 공동체와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무조건 우리 곁에 늘 있게 하겠다는 생각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며 “보내기 전에 확실한 신앙을 갖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이를 위해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우는 일도 중요하다고 보았고, 필그림교회는 신학생과 젊은 목회자들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며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고 했다.

목회 여정을 돌아보며 양 목사가 가장

먼저 꼽은 감사는 개척 초기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함께 교회를 시작해 준 가정들이었다. 교단과 건물을 뒤로하고 진리를 따라 나서야 했던 때, 온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가 되어 준 일도 잊을 수 없는 감사로 남아 있다고 했다.

반면 그의 목회 가운데 가장 오래 지속된 어려움은 특정한 사건보다 내면에서 반복된 질문이었다. 교회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과연 그 성장이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교회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끊임없이 물어야 했다. 외형적으로는 주목받는 교회라 됐고 성도들의 신뢰도 받았지만,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자신의 영성은 충분히 자라고 있는지에 대한 갈증도 놓이지 않았다. 양적 성장을 이루고도 마음 한편에 남아 있던 이 갈등은 교회의 목적을 개교회 성장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리고, 필그림선교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면서 비로소 풀리기 시작했다.

이 같은 자신의 여정을 돌아본 양 목사는 앞으로 목회 현상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현실을 후배 목회자들이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 자체가 목회의 실패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목사는 “상황과 환경에 지나치게 놀라지 말고,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며 “목회가 어려워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크고 깊게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미주 기독일보 김대원 기자

강요한 선교사 “갈등 딛고 다시 일어선 인터콥… 이슬람권 선교에 더욱 박차”

지난 2년간 선교사 파송과 공동체 모두 회복세…

다민족 교회와 청년 세대가 새로운 선교 동력으로 부상

인터콥(InterCP, 대표 최바울 선교사)이 지난 몇 년간의 내부 갈등과 리더십 이탈을 딛고 선교사 파송과 공동체의 영적 역동성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특히 북미에 거주하는 다양한 민족을 선교사로 훈련해 이슬람권과 미전도 지역으로 파송하는 새로운 선교 전략이 확산되면서, 인터콥의 사역 지경도 한인교회를 넘어 세계 교회로 넓어지고 있다.

강요한 선교사는 지난 7월 14-17일 캘

리포니아 온타리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북미주 선교캠프 일정 가운데 진행된 최근 인터뷰에서 지난 수년간 인터콥이 겪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남아 있던 사역자들의 헌신과 새로운 리더들의 등장으로 숫자적으로나 영적으로 빠른 회복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강 선교사는 “지난 2-3년간 내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고 많은 선교사와 핵심 사역자들이 새로운 사역으로 옮겨갔



인터콥 2026 북미주 선교캠프 현장의 모습. ©주최 측 제공

다”며 “그러나 남은 분들이 이전보다 더욱 헌신했고, 비어 있던 자리가 새로운 사람들로 다시 채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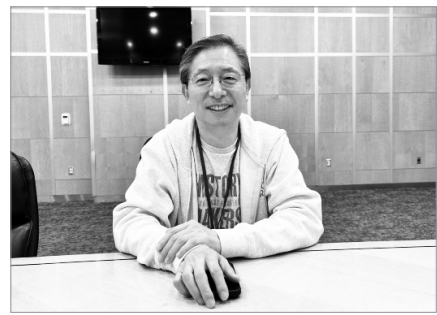


인터콥 비전스쿨 자료사진. 강사 안전문제로 얼굴은 공개하지 않았다. ©주최 측 제공

갈등으로 조직이 약화된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젊은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고 공동체의 참여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핵심 인력이 떠난 자리에 그들

안 눈에 잘 띄지 않았던 사역자들이 책임을 맡으면서 공동체 안에 새로운 활력과 주인의식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강 선교사는 “사역은 특정한 몇 사람



인터콥 강요한 선교사 ©주최 측 제공

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시며 이어가시는 것임을 다시 확인했다”고 전했다.

박현희 기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열어갑니다

국토교통부 TS 한국교통안전공단

각 key에 따른 찬양곡들의 특징 분석



유성환

기타로 찬양인도를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key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C key, D key, E key, F key, G key, A key, B key

이 중에서 F key는 일단 1도 화음이 하이코드에 속하는 F 코드이고, IV도 화음이 Bb 코드라는 매우 잡기 힘든 코드이기 때문에, 기타 연주자들에게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key입니다. 마찬가지로 B key도 상당히 잡기 힘든 코드입니다. 따라서 찬양인도에서 주로 쓰이는 key는 실제적으로는 C, D, E, G, A의 다섯가지 key이며, 다른 key들은 카포를 활용하여 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각 key들에 분포된 찬양곡들의 특징을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아

래의 내용들은 저자의 개인적인 판단이 많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콘티 작성 시의 참고 정도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1. C key의 특징 분석

Ckey에는 주로 클라이맥스에서 '높이' 올라가는 곡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같은 경우는 e음까지 올라가는 대표적인 하이톤 곡입니다. 전반적으로 약간 느릿하더라도 큰 성량을 요구하는 경배와 찬양 곡들이 많은 편이며, 찬송가 중에서도 원키가 D, E b key이지만 음이 높기에 C key로 낮추어 불러야 하는 곡들도 다수 있습니다.

2. D key의 특징 분석

D key에는 주로 조용한 묵상곡들, 고백적인 곡들 및 경배와 찬양 곡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

님을>이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대개 D key곡은 목소리가 잠긴 아침에 부를 때 무난하며, 베이스 라인도 가능하므로 기타로는 아르페지오 기법으로 연주하는 것이 D key 곡들의 특징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E key의 특징 분석

E key에는 모던 스트로크 계열의 경배와 찬양 곡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칼립소 계열의 경쾌한 템포의 찬양들도 많습니다. 또한 교제 찬양,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찬양도 다수 있습니다. <빛 되신 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찬송가 중에서도 E key로 낮추어 부를 수 있는 찬양들이 많은 편입니다. E key는 핑거링 연주가 힘든 편에 속하며, 대신 기타 연주의 특성상 오픈 코드를 극대화하여 사

용할 수 있는 key이기 때문에 아르페지오보다는 경쾌하고 맑은 울림의 스트로크 연주가 어울립니다.

4. F key의 특징 분석

기타 주자들에게는 F key는 하이 코드가 많아 연주하기에 부담스러운 key입니다. 따라서 보통 E나 G로 전조하여 연주하거나 카포를 사용하여 연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F key에는 조용한 경배와 찬양 곡들이 많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등이 대표적인 F key 곡입니다.

5. G key의 특징 분석

G key 곡들은 다양한 리듬의 곡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편입니다. 경배와 찬양 계열의 곡들과 칼립소, 16비트 계열의 곡들이 다수 있습니다. 부르가에도 무난하고 남녀가 함께 부르가에도 적절하기

때문에 많은 곡들이 G key를 가지고 있습니다. 템포가 상당히 다양한 것이 특징인데,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와 같이 빠른 곡들도 있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와 같은 느린 곡도 있습니다. G key는 아르페지오 연주가 어렵지 않으며, G-C2-Dsus4 계열의 코드 패턴을 활용 할 수 있어 스트로크 연주 시에 경쾌한 음을 내므로 초보자들이 콘티를 짤 때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key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A key의 특징 분석

◆ 유성환

1982년 11월에 출생하였고 2008년 2월에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 및 경영학 학사로 졸업하였으며 아마추어 기타 연주자로서 여의도순복음교회, 연세대학교 예수전도단, 그리고 퍼듀 한인 장로교회를 섬기면서 소모임 찬양 인도를 약 10여 년 정도 담당하였다.

찬양의 능력 3

지금까지 우리는 적들에 대해 살펴봤고, 하나님이 그 적들을 대항하여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무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알아보자.

시편 149편은 우리의 무기가 성공적으로 “이것으로 못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수 있다고 전한다(7-9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자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으로 보는 걸 어려워한다. 찬양을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고, 처벌과 결박 그리고 심판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개념에 당혹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개념이 전혀 신앙적이지 않고,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진정 신앙적이며 당신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모습이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우리는 순교자들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며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다.



저드슨 콘월

또 11장 17-18절에서 이십사 장로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아여 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셨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롬 12:19).

하나님은 당신이 복수의 영을 갖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 마음이 당신을 파괴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람은 복수심을 다룰 수 있을 만큼 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눅 6:27-28)고 말씀하신 것이다.

사람은 복수심을 다룰 수 있을 만큼 강하지 못하다.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이를 기억하고 이 마음을 불리고 있을 정도로 강하며, 만일 그들이 너를 통해 흘러가는 사랑에 복종하지 않으면,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한다. 나는 너를 위해 이를 다스릴 것이다.”

교회사를 통해 이방에 의해 죽임 당한 수천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 혹은 폭스의 『기독교 순교사회』(Book of Martyrs)에 기록된 하나님을 간증했다는 이유로 사람이 사람에게 가한 비인간적인 행위들을 볼 때, 또 세계 목사들을 향한 나의 사역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한 일들을 볼 때면 내 속에서는 “오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되갚아주시는 걸 잊지 마십시오!”라고 소리치게 된다.

내가 거칠거나 냉담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나는 사실 꽤나 여린 사람이다. 나는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 때문에 파멸하는 것을 보면 그들을 계속 사랑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정당한 분일 뿐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그들에게 결국은 원수를 갚으시는 것임을 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을 알기에, 그리고 처벌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기에 나는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공의가 아직 그들을 향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있는 위치는 복수나 심판을 간청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 하나님

의 높은 찬양이 있게 하는 곳이다. 복수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방식으로 그것을 다루실 것도 안다.

◆ 저드슨 콘월 Judson Cornwall, 1924-2005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의 모든 영역에 탁월하게 적용하는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그는, 매우 존경받는 선생이자 작가이다. 30년간은 개교회의 목사로, 12년간은 여러 집회와 사경회 등의 강사로 세계 각처를 여행하는 등 거의 50여 년 동안 가르치는 사역을 해왔다. 그는 평생의 사역기간 동안 50권의 책을 저술 하였고, 이 중 많은 책들은 여러 외국어로 번역되어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다양한 기독교 잡지와 정기간행물 등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책은 예배에 관한 클래식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저서로는 『춤추는 예배자 다윗』, 『예배합니다』(이상 토기장이) 등이 있다.

◆ 이설아 옮김이

성신여자대학교와 한동대학교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삼성전자, SDS 등에서 인하우스 번역사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프리랜서 전문 통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찬양한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주 예배하는 삶, 마커스워십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안양시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비장애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통합의 장 마련

‘2026년 관악워터랜드’ 개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과 화합의 시간

사단법인 성민원(이사장 권태진)이 수탁 운영하는 안양시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용구)은 지난 7월 28일(화), 장애인에게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지역통합행사 ‘2026년 관악워터랜드’를 개최했다.

‘2026년 관악워터랜드’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화합의 장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사회통합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복지관 이용자와 지역주민을 비롯해 평화의집, 안양의집, 사랑의집, 경기장애인 부모연대 안양지회 주간활동서비스센터 등 지역 내 다양한 기관이 함께 참여하며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는 조재용 세무회계사무소와 (사)유쾌한공동체의 후원으로 더욱 풍성하게 진행됐으며, 평촌도림교회와 개인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안전한



(사)성민원이 운영하는 안양시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이 마련한 ‘2026년 관악워터랜드’에서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성민원

물놀이 환경 조성과 행사 운영을 지원했다.

참여자들은 물놀이 활동을 비롯해 비치볼 만들기, 사진 인화,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컵라면, 아이스크림 트럭, 이천시니어클럽 치킨 등 먹거리 부스가 운영돼 참여자들에게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박용구 관장은 “3회째를 맞은 관악워터랜드가 지역사회 기관과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더욱 뜻깊은 행사로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지역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지역통합을 실현하는 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태진 이사장은 “성민원은 섬김과 사랑,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복지 실현에 힘쓰고 있다”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모든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더은 기자

진태현·박시은,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새 MC 발탁

부부 동반 진행으로 첫 녹화 마쳐 “누구나 편안하게 예수님 알아가도록 할 것”

배우 진태현·박시은 부부가 CTS기독교TV 프로그램 ‘내가 매일 기쁘게’의 새 진행자로 나선다.

진태현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박시은과 함께 ‘내가 매일 기쁘게’ MC를 맡게 됐으며 첫 녹화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는 “아내와 제가 CTS ‘내가 매일 기쁘게’의 MC가 됐다”며 “저희의 정체성이 예수님을 믿는 부부이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송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믿는 사람들만의 방송이 아니라 모두가 편안하고 불편하지 않게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제작진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진태현과 박시은이 방송 스튜디오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예수님의 사랑 잘 전하겠다”

진태현은 새롭게 개편되는 ‘내가 매일 기쁘게’에 대한 기대와 관심도 당부했다.

그는 “하나님을 어려워하지 말고 완전히 새롭게 방송될 CTS ‘내가 매일 기쁘



배우 진태현 박시은 부부. ©뉴시스

게를 기대해 달라”며 “저희 부부가 책임감을 갖고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출연할 초대손님들에 대해서도 “맛지고 훌륭한 분들이 계속 나온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출연자들의 신앙과 삶의 이야기를 전하는 CTS기독교TV 프로그램이다. 진태현과 박시은은 부부 공동 MC로 출연해 다양한 초대손님들의 이야기를 시청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혼속려캠프 하차 후 새 방송

진태현은 앞서 지난 4월 JTBC 예능 프

로그램 ‘이혼속려캠프’에서 하차했다.

당시 그는 매니저를 통해 제작진의 설명과 하차 결정을 전달받았으며, 4월 초 녹화를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

하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그는 “개인적으로 섭섭하거나 속상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밝히며 제작진의 결정을 받아들였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내가 매일 기쁘게’ MC 발탁은 ‘이혼속려캠프’ 하차 이후 약 3개월 만에 전해진 새 방송 소식이다. 진태현은 아내 박시은과 함께 첫 녹화를 마치며 부부 동반 진행에 나섰다. 최승연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05:00	00 광림교회 제38회 호렘산 기도회 22일차 40 하나님의 손길	20 365 새벽기도	00 생명의 삶 2026년 08월 04일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23년 08월 04일 30 은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다시 보는 명설교 The올림(117회) 30 TV강단 하늘빛광성(박경수)	10 성경 속 인물사 30 복음강단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
0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 지구촌-김우준 30 생명의 말씀 샘솟는-최병남	10 GOODTV 오늘의 기도 20 비전설교 세미나 (이은상) 50 GOODTV NEWS	10 [말씀] 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43회) 50 [말씀] 권혁빈 목사(씨드교회)(210회)	00 생명의 양식 정윤(유성택) 30 말씀의 능력(전태석)(594회)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성경 속 전쟁사-에피소드
07:00	00 CTS뉴스 20 생명의 말씀 대전한빛-백용현 50 생명의 말씀 영광제일-이기웅	1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20 사랑의 메시지 대지순복음 (한 별) 50 사랑의 메시지 원남 (권기웅)	30 신앙회복 프로젝트 (민아야 신다)(6회)	20 김동호 목사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713회)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820회)	00 청주금천교회 주일예배실황 신영민 목사
08:00	20 내 영혼의 찬양 Praise 40 서정희의 매일성경(107회)	2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30 체인지 더 월드 르안다 권(목양강리교회 김완중 목사)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26년 08월 04일 2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691회)	00 하나님의 음성(307회) 20 CBS 성서학당 (김기석)(4534회) 마태복음 42강	00 꽃보다 미소(8회)
09:00	00 내가 매일 기쁘게 권복을 목사 2부 5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역사서편] 사무엘 2장 이규호 목사	30 비전설교 라이프처치 (심성수)	00 [말씀] 공진수 목사(목양교회)(7회) 40 바이블 필름 (마태복음)(13회) 50 신약의 세계로 오십쇼(3회)	10 새롭게하소서(11476회) 배우 이아현 1부	00 김재현의 광야예찬(26회) 전국수석에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김진표 이사장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10:00	4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0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0 THE NEW 하늘빛항기(21회)	00 CBS NEWS 10 20 성서 700 도사여행(12회)	00 내 삶의 행보(219회) 50 대한민국 복음이 답이다(31회)
11:00	00 7000미라클-예수사랑여기에 낙도 특집 5회 어불도소망교회 / 정보영 목사 50 신앙에세이	00 노크토크	10 [말씀] 주중중 목사(주안장로교회)(283회) 50 예수동행일기(27회)	0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106회)	00 소문난 성경교실(731회) 오택현 교수 다섯 번째 13강 중간기 시대를 찾아가다 : 해복의 등극 과정 3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539회) 50 성지가 좋다(541회) 천혜의 요새 셀라, 나보너두스 비문을 찾아서
12:00	00 CTS뉴스 30 생명의 말씀 군포제일-권태진	00 GOODTV NEWS 30 행복한 쉼터 풍성한 (김성곤)	10 바이블 필름 (마태복음)(13회) 20 [말씀]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343회)	00 감신대 화요채플(94회) 30 TV강단 필그림(김형석)	20 말씀의 창 은정강리교회 최상일 목사 50 비전메시지 큰은혜교회 이규호 목사
13:00	00 생명의 말씀 안양서부-전승환 30 신앙에세이 40 서정희의 매일성경(107회)	00 행복한 쉼터 명륜중앙 (손익석) 30 사랑의 메시지 순복음성남 (양병열)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82회) 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43회)	00 올포원(759회)	30 비전메시지 청주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
14:00	00 [생방송]Caling GOD(2541회) 50 지금 선교해YOU	00 GOODTV 특별간중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26년 08월 04일 2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872회)	00 말씀의 힘 수원목양(유태민) 30 새롭게하소서(11103회) 박정욱 원장	00 김상환 목사의 칠 년을 하루같이(176회) 40 CBN 크리스천 월드뉴스(196회)
15:00	40 7000미라클-예수사랑여기에 낙도 특집 5회 어불도소망교회 / 정보영 목사	00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균	00 [말씀] 김현오 목사(베델교회)(331회) 40 생명의 삶 2026년 08월 04일	20 CBS 성서학당 (신우인)(3560회) 민수기 17강	00 선한목자교회 주일예배실황 김다위 목사
16:00	30 생명의 말씀 분당햇불-이재희	00 황덕영 목사의 비전메시지 30 행복한 쉼터 평택성원(박충권)	00 하용조 목사의 오한복음 강해(36회) 40 바이블 필름 (마태복음)(13회) 50 [말씀] 백상욱 목사(오늘의교회)(7회)	10 통박사 조병호의 통 성경학교(3회) 50 예수 영광의 면류관(5회)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17:00	00 수영로의 시간 이규현 50 신앙에세이	0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10 사랑의 메시지 충만한(임다윗)	30 [말씀] 박신웅 목사(일바리온누리교회)(295회)	50 영혼의 양식 구세군대한분명	00 월드비전과 C채널이 함께하는 희망터치(12회)
18:00	00 생명의 말씀 오병이어-권영구 30 부흥 어게인(100회) 전주시온성교회 / 김승환 목사	10 행복한 쉼터 순복음금정 (김현근) 40 더 깊은 울림 한성 워십	10 RE바이블(39회) 50 예수동행일기(36회)	00 TV강단 용인송전(권준호) 30 TV강단 여의도침례(국명호)	00 말씀의 창 홀리씨즈교회 서대천 목사 30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 차톡(29회) 여름수련회
19:00	20 더 초존 시즌5(더빙)(2회) 15세	00 장상길 목사의 성령의 장맛비	50 예수동행일기(36회)	00 이영훈목사의 땅끝까지 복음을(621회) 30 TV강단 용인비전(신용수)	00 비전메시지 개령교회 김도경 목사 30 말씀의 창 영광교회 윤보환 목사
20:00	0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30 생명의 말씀 송도가나나-김의철	00 신의 2수 10 사랑의 메시지 순복음진주초대 (이경은) 40 노크토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23년 08월 04일 2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선한목자교회-(71회) 40 미션로그 - 끝까지 많은 선교이야기(2회)	00 CBS비전특강 윤차복 목사의 종말론 특강 50 크리스천칼럼.안전제일(이재일) 40 말씀의 창 서울제일교회 최봉수 목사	0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289회) 10 복음강단 오송하늘문교회 이재수 목사 40 말씀의 창 서울제일교회 최봉수 목사
21:00	00 메신저스 김선교 선교사 30 서정희의 매일성경(107회) 50 CTS뉴스	40 GOODTV NEWS 12세	00 상당교회 주일예배 2026년 08월 04일	00 CBS 성서학당 (김기석)(4534회) 마태복음 42강 50 살롬 살롱(36회)	10 김하나 목사의 말씀강해(194회)
22:00	2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역사서편] 사무엘 2장 이규호 목사	00 다니엘 기도회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26년 08월 04일 30 믿음의 씨앗 고흥교회와 함께(22회)	00 CBS NEWS 10 20 새롭게하소서(11476회) 배우 이아현 1부	00 C채널 매거진 굿데이(412회) 20 소문난 성경교실(728회) 오택현 교수 다섯 번째 10강 중간기 시대를 찾아가다 : 알렉산더 안네우스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12회)
23:00	10 [CTS믿음의 명작] 밀레니엄특강 이종표 목사 3강	0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10 아버지 나의 아버지	10 카일 아이들만의 무슨 일이 있어도(5회) 40 생명의 삶 2026년 08월 04일 50 바이블 필름 (마태복음)(13회)	10 예수 영광의 면류관(5회)	0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270회) 50 대한민국 복음이 답이다
00:00	00 Caling GOD(2541회)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10 행복한 쉼터 몰렛돌중앙 (안호성)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23년 08월 04일 20 [말씀] 반태효 목사(방주교회)(126회)	10 성서 700 도사여행(12회) 50 성경꿀팁 이것이 궁금하다(29회)	00 한소망교회 한밤의 기도회(126회) 40 성경 속 인물사
01:00	00 CTS스페셜 레비스팅스 찬양예배 II 40 위대한 발걸음 50 워킹온더바이블-성지탐방(6회)	00 더 메시지 10 사랑의 메시지 순복음중동 (김경문) 4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00 [말씀] 이재훈 목사(은누리교회)(694회) 40 [말씀] 윤만선 목사(은혜샘물교회)(279회)	00 소망의 말씀 (김경진)(344회) 40 CBS 비전특강 윤차복 목사의 종말론 특강	00 선교는 지금 2(15회)
02:00	10 내가 매일 기쁘게 공병철 대표	10 사론의 꽃 필 때	20 [말씀] 김형석 목사(지구촌교회)(231회)	30 TV강단 승리(박규성)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03:00	0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역사서편] 사무엘 2장 이규호 목사 50 힐링스토리	10 GOODTV 특별간중	00 [Global Sermon] Kyle Idleman's No Matter What Comes Through Those Doors(5회) 30 [말씀] 양춘길 목사(필그림선교회)(630회)	00 올포원(274회)	00 세미한교회 주일예배실황 이은상 목사
04:00	00 TV새벽예배 수영로교회 40 내 영혼의 찬양 Praise	0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새문안 (이상학) 30 새벽을 깨우는 기도 50 GOODTV 새벽예배 이영훈	10 [말씀] 김주환 목사(허브교회)(6회)	00 CBS 성서학당 (송태근)(4533회) 고린도후서 21강 50 CBS 교회소식(1062회)	00 클래식 말씀의 창(13회) 김상복 목사 30 C채널 명설교 다시 복음으로(78회)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기억하겠습니다
계승하겠습니다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날의 희생이 오늘의 자유입니다
그 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합니다

8.15

제81주년 광복·전국 연합예배



대표회장
천 환 목사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예일교회 원로목사



설교
김은호 목사
다니엘 기도회 운영위원장
오륜교회 원로목사

빛을 되찾은 그날, 복음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감사하며,
대한민국의 광복과 전국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믿음과 자유를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뜻깊은 예배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청합니다.

	일시	2026년 8월 16일(주일) 오후 2:30
	장소	예일교회 본당 (인천광역시 남동구 방축로 486) 032) 438-6691~4
	내용	경축예배 · 특별찬양 · 기념메시지 · 나라와 다음세대를 위한 특별기도
	교통편	지하철 1호선 간석역 북광장 (도보 3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32)

 **주최 한국교회연합 CCiK**
THE CHRISTIAN COUNCIL OF KOREA
광복을 기억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세웁니다.